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사회심리 전공
구 자 일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최 인 철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사회심리 전공
구 자 일

구자일의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金 清澤 
부위원장 고 성 룡 
위 원 최 인 철 

초록

대인 지각은 따뜻함(warmth)와 유능함(competence)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이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이 자녀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2에서는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행복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었다. 연구 1에서는 아버지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모는 모두 자신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부자 관계, 모녀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실제 행복 간에 불일치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인식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부모, 자녀, 사회 지각, 따뜻함, 유능함, 행복

학번: 2012-22493

목차

서론.....	1
.	
연구 1.....	22
방법.....	22
결과.....	27
논의.....	49
연구 2.....	54
방법.....	54
결과.....	56
논의.....	75
종합논의.....	81
참고문헌.....	91
부록.....	102
영문초록.....	117

서론

2001 년 9 월 25 일 미국 마이애미의 한 공원에서 한 늙은 여자가 여자 옷과 하이 힐을 들고 있다가 외설(indecent exposure)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으로 다름 아닌,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의 아들 그레고리 헤밍웨이(Gregory Hancock Hemingway)였다. 그레고리 헤밍웨이는 유능하고 성공한 아버지였지만 자신에게 따뜻하지 않았던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그가 집필한 책 ‘아빠: 개인적 회고(Papa: A Personal Memoir)’에서 고백했다(Hemingway, 1988). 이 사건은 아버지의 유능함보다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자녀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뜻함(warmth)과 유능함(competence)은 사회 지각(social perception)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주제이다(Judd, James-Hawkins, Yzerbyt, & Kashima, 2005). 사람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대상을 지각한다(Asch, 1946; Cuddy, Fiske, & Glick, 2008; Fiske, Cuddy, & Glick, 2007; Fiske, Cuddy,

Glick, & Xu, 2002; Judd, et al., 2005; Peeters, 2002; 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Wojciszke, 1994). 예를 들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은 적게 지각하고 유능함은 많이 지각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능함은 적게 지각하고 따뜻함은 많이 지각한다(Fiske, et al., 2002).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은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따뜻함의 정도(따뜻한, 차가운)와 유능함의 정도(유능한, 무능한)에 따른 대상에 대한 지각이 대상에 대한 존경심(admiration), 혐오심(contempt), 시기심(envy), 그리고 동정심(pity)의 4 가지 각기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킴을 밝히고 있다(Cuddy, Fiske, & Glick, 2004; Cuddy, Fiske, & Glick, 2007; Fiske, Cuddy, & Glick, 2002a,b). 이 연구들에 따르면, 존경심은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이나 내집단(ingroup)처럼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이고, 혐오심은 복지 수령자와 같은 낮은 지위와 기식(free-loading)의 특성을 보이는 즉,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대해 느끼게 되는 정서이다. 한편, 사람들은 노인과 장애인처럼 따뜻하지만 무능해 보이는 집단에게는 동정심을, 부유한

사람들이나 외집단(outgroup)처럼 유능하지만 차가워 보이는 집단에게는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은 대상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은 따뜻하고 유능하게 지각되는 집단에게는 돕기(helping)와 같은 능동적(active) 행동과 제휴(associating)와 같은 수동적(passive) 행동을 취하게 되는 반면, 차갑고 무능하게 지각되는 집단에게는 괴롭힘(harassing)과 같은 능동적 행동과 무시(neglecting)와 같은 수동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Cuddy, et al., 2007).

표 1. 지각된 따뜻함과 유능함에 따른 사회 집단들(*social groups*)의 4 가지 분류.

따뜻함 차원	유능함 차원	
	무능한	유능한
따뜻한	<p>온정적 편견</p> <p>낮은 지위, 경쟁적인</p> <p>동정심, 연민</p> <p>(e.g., 노인, 장애인, 주부)</p>	<p>존경심</p> <p>높은 지위, 경쟁적이지 않은</p> <p>자부심, 존경심</p> <p>(e.g., 내집단, 가까운 협력자)</p>
차가운	<p>경멸적 편견</p> <p>낮은 지위, 경쟁적이지 않은</p> <p>경멸, 혐오, 분노, 적의</p> <p>(e.g., 복지 수령자, 가난한 사람)</p>	<p>시기적 편견</p> <p>높은 지위, 경쟁적인</p> <p>시기심, 질투심</p> <p>(e.g., 아시아인, 유대인, 부유한 사람, 페미니스트)</p>

Notes. Fiske, Cuddy, Glick, & Xu(2002) 논문에서 인용.

이처럼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에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과 더불어, 대상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과 지각자의

행복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타인과의 관계는 행복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심리학자들은 관계성(relatedness)을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또한 타인에게서 사랑 받고 보호 받기 위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려는 욕구로 정의하며, 행복에 대한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해 밝혀왔다(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58; Deci & Ryan, 1991; Diener & Seligman, 2002; Harlow, 1958;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4; Myers, 1992; Ryan & Deci, 2000; Ryan, 1993). Ryan 과 Deci 의 연구(2000)에 의하면, 관계성(relatedness)은 자율성(autonomy)과 유능성(competence)과 함께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psychological needs) 중 하나로 평가되며, 사람은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더 많은 성장(growth), 통합(integrity), 그리고 웰빙(well-being)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222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상위 10%의 학생들(very happy people)과 불행한 하위 10%의 학생들(very unhappy people)을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상위 10%의 학생들이 하위 10%의 학생들보다 가족, 연인, 친구와 더 강한 유대감을 갖고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Seligman, 2002). 또한,

대인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했으며(Myers, 1992), 사람들은 상사, 직장동료 등과 있을 때보다 부모, 형제/친지, 친구, 배우자 등의 중요한 타인과 있을 때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Kahneman, et al, 2004). 이처럼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은 지각자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사람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하게 한다. 애착(attachment) 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에 있어 영아기 때의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Waters 와 그의 동료들(1979)이 종단 연구를 통해 15 개월된 영아의 애착의 질과 영아들이 3 세 반이 되었을 때의 유능감(competence)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안정된 애착을 보였던 영아들이 그렇지 않았던 영아들에 비해, 3 세 반이 되었을 때 유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시절의 애착의 질은 11, 12 세가 된 아이들의 또래 유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hulman,

Elicker, & Sroufe, 1994). 한편, 불안정한 애착이 우울감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어 왔다(Besser & Priel, 2003; Reis & Grenyer, 2002). 애착 이론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이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Block, 1971; Herman-Stahl & Peterson, 1996; Lasko, Field, Gonzalez, Harding, Yando, & Bendell, 1996; Field, Lang, Yando, & Bendell, 1995). 예를 들어, 부모와 높은 친밀도를 보인 청소년들이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 그리고 적은 우울감을 보였으며(Lasko, et al., 1996; Field, et al., 1995), 더 적응적(well-adjusted)이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rman-Stahl & Peterson, 1996). 또한 잘 적응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따뜻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lock, 1971).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는 자녀의 행복 및 긍정적 발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사회 지각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지각자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자녀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사회 지각의 근본적 차원: 따뜻함과 유능함

타인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사회 지각은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Cuddy, Fiske, & Glick, 2008).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의도대로 타인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 타인의 행동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우호적인(friendly), 도움을 주는(helpful), 진실된(sincere), 도덕적인(moral) 등의 특질을 포함하는 따뜻함(warmth) 차원은 지각된 타인의 의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지적인(intelligent), 숙련된(skillful), 창의적인(creative) 등의 특질을 포함하는 유능함 차원은 타인의 능력을 지각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Fiske, Cuddy, & Glick, 2007). 따라서,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은 사회 지각에 있어서 대단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따뜻함(warmth)과 유능함(competence)의 차원이 사회 지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두 차원이라는 사실을 밝혀 왔다(Asch, 1946; Cuddy, Fiske, & Glick, 2008; Fiske, Cuddy, & Glick, 2007; Fiske, et al., 2002; Judd, et al., 2005; Peeters, 2002; 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Wojciszke, 1994). 즉, 사람들은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는 목적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지의 관점에서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지각의 차원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자는 Asch(1946)이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특정 특질들(e.g. 단호한, 현실적인, 부지런한, 지적인)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따뜻함(warm)과 차가움(cold)이 중심 특질(central trait)로 작동함을 밝혔다. Rosenberg 와 그의 동료들(1968)은 Asch(1946)의 연구를 기초로 사회 지각의 차원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친구나 친척, 유명 인사 등 특정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떠올리게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형용사들을 주어진 형용사 목록에서 선택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0 개의 형용사들이 좋은-나쁜(good-bad), 강한-부드러운(hard-soft), 그리고 능동적인-수동적인(active-passive)의 3 차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 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특질 형용사들이 사회적으로

좋은-나쁜(social good-bad)차원; 따뜻함 차원과 지적으로 좋은-나쁜(intellectual good-bad)차원; 유능함 차원의 2 개의 차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좋은-나쁜 차원에서는 진실된(sincere), 허영심이 강한(vain) 등이 극명하게 분류되었고, 지적으로 좋은-나쁜 차원에서는 과학적인(scientific), 어리석은(foolish) 등이 각각 양 극단과 가깝게 분류되었다. 즉, 타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 형성은 따뜻함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좋은-나쁜 차원과 유능함 차원에 해당하는 지적 좋은-나쁜 차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도덕성(morality)과 유능함(competence)의 차원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한다는 사실도 나타났다(Wojciszke, Bazinska, & Jaworski, 1998; Wojciszke, 2005; Wojciszke, 1994). Wojciszke 와 그의 동료들(1998)은 연구를 통해 도덕성 특질로는 따뜻함 차원과 같은 정직한(honest), 관대한(generous), 인내심이 있는(tolerant) 등의 형용사들을 포함시켰으며, 유능함 특질로는 유능한(competent), 창의적인(creative), 능률적인(efficient) 등의 형용사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Peeters(2002)는 특질을 타인-유익성(other-profitability)으로 분류되는 호감과 관련된(likability-related) 특질과 자기-유익성(self-

profitability)으로 분류되는 권력과 관련된(power-related) 특질의 두 차원으로 분류했다. 그는 똑똑한(intelligent), 비능률적인(inefficient) 등의 특질들을 자신과 관련된 자기-유익(self-profitable) 차원에 포함시켰고,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비우호적인(hostile) 등의 특질들을 타인과 관련된 타인-유익(other-profitable) 차원에 포함시켰다. 이 두 차원 또한 타인-유익 차원은 따뜻함 차원으로 자기-유익 차원은 유능함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우세성-복종성(dominance-submissiveness) 차원과 우호성-적대성(friendliness-hostility) 차원에서 대인 관계 측면의 성격들이 분류된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했다(Freedman, et al., 1951; Judd, et al., 2005; Wiggins, 1979).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용어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사회 지각의 대표적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Judd et al., 2005). 즉, 따뜻함과 유능함은 사회 지각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보편적 차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Fiske, Cuddy, & Glick, 2007).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한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 지각은 대상에 대한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따뜻함과 유능함이 모두 높게 지각되는 회사에게는 존경의 정서를 느끼고,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아졌으며(Aaker, Vohs, & Mogilner, 2010), 정치인에게서 지각된 유능함은 선거의 승리와 관계되었으나, 지각된 사교성(sociability)은 반대로 선거의 패배와 관계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Castelli, Carraro, Ghitti, & Pastore, 2009). 그러나 지각자인 당사자의 정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각자인 자녀가 대상인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 것이 지각자인 자녀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행복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행복간의 관계는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자녀 양육 방식(parenting style)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parenting style)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수용성(acceptance)과 통제성(control)의 두 가지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다(Baumrind, 1967; Becker, 1964; Maccoby & Martin, 1983; Schaefer, 1959; Symons, 1939). 예를 들면, Symons(1939)가 자녀 양육 방식을 수용성/거부성(acceptance/rejection)의 차원에서 분류 및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Balwin(1955)은 정서적 따뜻함/적대성(emotional warmth/hostility) 차원과 독립성/개입성(detachment/involvement)차원을 제시한 바 있다. Schaefer(1959)도 자녀 양육 방식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Schaefer(1959)는 연령이 한 달에서부터 세 살까지인 아기들과 아기들의 어머니 56 쌍을 3 명의 관찰자로 하여금 관찰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관찰자들은 32 가지 행동 변수들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아기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정서적 활동들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기에게 행하는 애정 표현하기(expression of affection), 무시하기(ignoring), 건강에 대해 염려하기(concerning about health) 등의 행동들이 관찰되어 보고된 것이다. 관찰된 행동들을 종합해 본 결과, 연구자는 아기에게 행하는 어머니의 행동들이 사랑/적대(love/hostility)와

자율성/통제성(autonomy/control)의 두 차원으로 분류 및 해석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를 테면, 사랑/적대성의 차원에서는 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positive evaluation of child), 애정 표현하기(expression of affection) 등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에서부터 자녀를 부담으로 지각하기(perceiving child as burden), 벌 주기(punishment) 등의 적대성을 나타내는 행동까지 분류되었다. 또한, 자율성/통제성의 차원에서는 아기에 대해 자율성을 주기(autonomy)의 행동부터 과도한 접촉(excessive contact)의 행동까지로 분류 되었다. 이후, Becker(1964)가 따뜻함/적대성(warmth/hostility)과 엄격성/허용성(restrictiveness/permissiveness)의 두 차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Baumrind(1967; 1971)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자녀 양육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녀는 관찰자들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을 유치원과 가정에서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 변인들과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용성/반응성 차원과 요구성/통제성 차원 두 차원에 따라 부모의 양육 방식을 권위 있는(authoritative),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그리고 허용적인(permissive) 양육 방식의 3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자녀들에게 통제적이고 요구적이지만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자세도 취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 통제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덜 따뜻한 양육 방식은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따뜻하지만 비통제적이고 비요구적인 양육 방식은 허용적인 양육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발달적 특성과 자녀 양육 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자기 신뢰적(self-reliant)이고, 자기 통제적(self-controlled)이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받는 자녀들은 불만족하고, 고립되어 보이고,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허용적인 방식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 종종 충동적이었다. 이후, Maccoby와 Martin(1983)은 수용성(responsiveness)과 요구성(demandingness)의 차원을 제시하며, Baumrind(1967; 1971)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수용성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애착의 크기를 의미하는 반면에, 요구성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규칙 혹은 감독의 양을 나타낸다. Maccoby 와 Martin(1983)은 이 두 차원에서 Baumrind(1967; 1971)가 제시한 3 가지 양육 방식을 해석하고, 그 외에 수용성과 요구성이 모두 낮은 무관심한(neglecting) 자녀 양육 방식을 추가하여 4 가지 양육 방식이 있음을 밝혔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를 권위 있는 부모로 지각하는 것이 더 많은 삶 만족감, 자존감, 심리사회적 유능감, 자율성 등의 행복과 관련되는 여러 긍정적 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이 나타났다(Aunola, Stattin, & Nurmi, 2000; Lamborn, et al., 1991; Milevsky, et al., 2007; Karavasilis, Doyle, & Markiewicz, 2003; Gonzalez, Holbein, & Quilter, 2002; Steinberg, et al., 1994). 한편, 자녀 양육을 수용성과 거부성의 차원으로 나누고 자녀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부모의 수용성과 거부성 이론(PARTheory: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ory)도 연구되어 오기도 했다(Rohner, 1986). 이 이론에서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그에 따라 자녀들은 사랑 받는 정서를 느끼며 반면, 거부하는 부모는 자녀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자녀들은 사랑 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자녀 양육 방식을 수용성과 통제성의 차원으로써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수용성과 통제성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과 자녀의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 발달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온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두 가지 사항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째는 사회 지각의 따뜻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따뜻하게 지각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고, 둘 째는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지각하고 자녀의 행복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사회 지각의 두 차원인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수용성과 통제성의 차원을 고려해 보면, 수용성과 통제성의 차원은 따뜻함의 차원으로 분류 및 해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성의 차원은 Rohner(1986)가 그의 책에서 수용성/거부성의 차원을 따뜻함 차원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Daring 과 Steinberg(1993) 또한 자녀 양육 방식의 통합 모델(integrative model)을 제시하면서 수용성과 따뜻함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제성 차원은 자녀에게 내리는

규칙 혹은 감독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지각된 능력과 관련된 유능함보다는 지각된 의도와 관련된 따뜻함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유능함의 차원을 배제하고 따뜻함의 차원에 국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가 부모에 대해 사회 지각을 하게 하고, 그러한 사회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및 질문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따뜻함과 유능함이 사회 지각의 대표적이고 근본적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것이 자녀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자녀가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지각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 중에서 어떤 차원이 자녀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자녀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비교하여, 부모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가 평가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넷째,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이 행복과

갖는 관련성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2에서는 중학생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는 자녀의 관점 모형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관점 모형이다(그림 1 참조). 첫째, 자녀의 관점 모형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주 관심사이다. 둘째, 부모의 관점 모형에서는 부모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주 관심사이다. 전자의 모형은 자녀의 실제 행복에 관한 모형이고, 후자의 모형은 부모가 예측하는 자녀의 행복에 관한 모형이다. 각 모형은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로 4 가지로 세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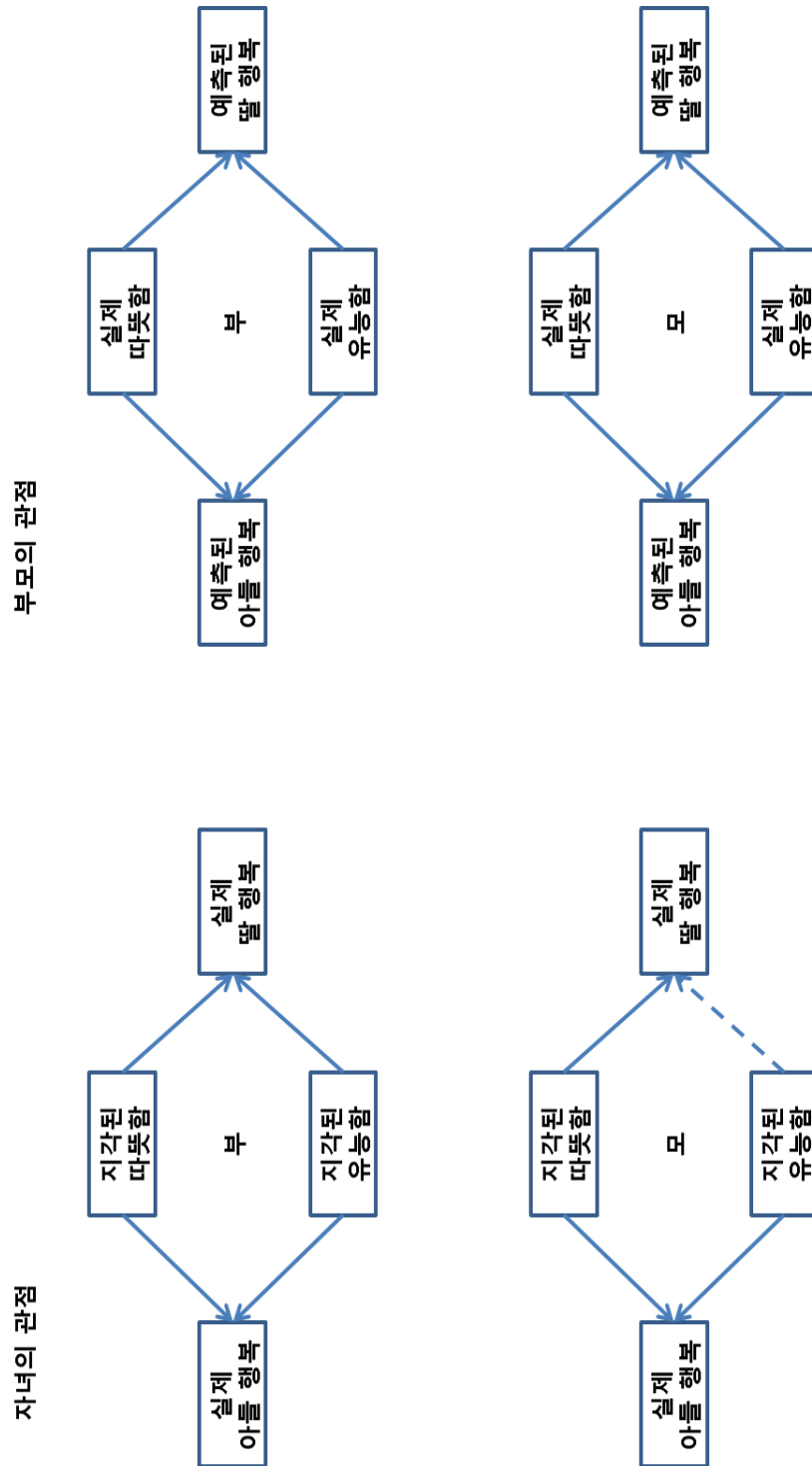


그림 1. 자녀의 관점 모형과 부모의 관점 모형(대학생 가족)

연구 1

방법

참가자

참가자 가족은 서울대학교와 건양대학교 및 기타 대학교에 게시한 연구 모집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연구 참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참가자 가족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90가족(서울대학교: 36가족, 건양대학교: 40가족, 기타: 14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 자격 조건은 2가지였다. 첫째, 가족은 부, 모, 자, 녀가 모두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4인 가족으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편 부모 가정 및 부, 모와 1명의 아들로 구성되거나 부, 모와 1명의 딸로 구성된 3인 가족 혹은 부, 모와 아들 2명으로 구성되거나 부, 모와 딸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연구 참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배제함과 동시에 부모, 자녀의 성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자녀의 연령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로 구성되거나, 혹은 대학생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연구 참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대학생과 연령 차가 많이 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혹은 그 이하의 자녀는 부모를 지각하는 데 있어 연령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참가자 가족들은 연구 사례비로 가족당 4만원을 받았다. 참가자 가족의 연령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참가자 연령 특성

참가자 연령 특성	부	모	자	녀
N	90	90	90	90
평균	52.52	49.60	21.77	22.21
표준편차	4.46	3.96	2.61	3.70
범위	44-75	42-65	17-31	16-34

절차 및 도구

설문지 배분 및 수거

가족 연구의 특성상, 가족이 모두 연구실에 와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연구자가 각 가정을 모두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우편을 통한 설문지 배분 및 수집을 원칙으로 하였다.¹ 설문지는 한 가족 당,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각각 작성할 서로 다른 4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우편 봉투에 동봉하여 배분 및 수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각 가족 구성원 별로 일일이 문자를 통해 설문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의 사항으로는 반드시 구성원 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설문지를 작성할 것과, 설문지에 만들어 놓은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할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¹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연구실에서 가족의 설문지를 수령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도 직접 연구실로 제출하였다.

측정 도구

따뜻함과 유능함

따뜻함과 유능함의 측정은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특질 형용사들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uddy와 그의 동료들(2008; 2007)이 사용했던 형용사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합한 형용사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뜻함은 따뜻한(warm), 너그러운(generous), 상냥한(good-natured), 친절한(friendly), 가정적인(family-man)의 5개의 형용사로 측정하였고, 유능함은 유능한(competent), 경쟁심이 강한(competitive), 똑똑한(intelligent), 능력 있는(capable), 성공적인(successful)의 5개의 형용사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에 의해 질문에 답하였다. 분석에서는 따뜻함 5문항과 유능함 5문항의 각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부모에게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 그림 2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성 개념	문항
따뜻함	귀하의 아버지/어머니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따뜻한, 너그러운, 상냥한, 친절함, 가정적인]
유능함	귀하의 아버지/어머니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경쟁심이 강한, 똑똑한, 능력 있는, 성공적인]

그림 2. 자녀 질문지

구성 개념	문항
따뜻함	귀하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따뜻한, 너그러운, 상냥한, 친절함, 가정적인]
유능함	귀하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경쟁심이 강한, 똑똑한, 능력 있는, 성공적인]

그림 3. 부모 질문지

행복

자녀의 행복은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Lyubomirsky & Lepper, 1999)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에게는 “귀하의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귀하의 딸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하여 7점 척도(1점; 전혀 행복하지 않다, 7점; 매우 행복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을 비교할 때에는 부모와 동일한 1개의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 측정 문항 중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매우 _ _ _ 라고 생각한다.” 문항(1점;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7점; 행복한 사람이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는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자녀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녀의 관점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 점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 변량 분석(mixed ANOVA)을 시행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이 피험자 내 변인(within-subject variables)이 되었고, 자녀의 성별이 피험자 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이 되었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와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나누어 각 1 번씩 총 2 번

시행하였다. 그 결과(표 3 참조), 우선 부모에게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text{아버지}}(1, 151) = 6.249, p = .013$, $F_{\text{어머니}}(1, 150) = 25.377, p < .001$). 즉,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따뜻함($M_{\text{아들}} = 5.11, M_{\text{딸}} = 5.16$)보다 유능함($M_{\text{아들}} = 5.44, M_{\text{딸}} = 5.25$)을 더 많이 지각한 반면, 어머니에게는 유능함($M_{\text{아들}} = 5.44, M_{\text{딸}} = 5.27$)보다 따뜻함($M_{\text{아들}} = 5.80, M_{\text{딸}} = 5.59$)을 더 많이 지각했다.

성별에 따른 주 효과($F_{\text{아버지}}(1, 151) = .194, p = .661, F_{\text{어머니}}(1, 150) = .064, p = .801$) 및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_{\text{아버지}}(1, 151) = 1.895, p = .171, F_{\text{어머니}}(1, 150) = .022, p = .801$)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아버지에게는 따뜻함보다 유능함을, 어머니에게는 유능함보다 따뜻함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자녀(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따뜻함	유능함	<i>p</i>	따뜻함	유능함	<i>p</i>
아들	5.11(1.19)	< 5.44(1.07)	.002	5.80(.89)	> 5.44(.93)	.001
딸	5.16(1.21)	< 5.25(1.12)	.478	5.59(.96)	> 5.27(.90)	.001
평균	5.14(1.19)	< 5.35(1.09)	.014	5.70(.93)	> 5.36(.92)	.000
값	9)	9)		3)	2)	
	√	√	.179(.000)	√	√	.001(.000)
아버지	5.01(.84)	> 4.74(.99)	.005	-	-	
지))				
어머니	-	-		5.41(.85)	> 4.78(.76)	.000
니				5)	6)	

Notes. 부등호는 평균 값 크기 비교를 의미하며 괄호, *p* 값은 차이 검증의 유의 수준을 의미한다.

부모의 관점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의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성별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두고 혼합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51) = 44.126, p < .001$). 즉, 부모들은 유능함($M_{\text{아버지}} = 4.74, M_{\text{어머니}} = 4.78$)보다는 따뜻함($M_{\text{아버지}} = 5.01, M_{\text{어머니}} = 5.41$)에 대해 스스로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F(1, 151) = 4.043, p = .061$). 또한, 평가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났다($F(1, 151) = 7.174, p = .008$). 즉, 아버지 스스로가 유능함에 비해 따뜻함을 높게 평가하는 정도보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유능함보다 따뜻함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컸다. 이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에 비해 더 강하게 스스로를 유능한 사람이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을 정리 및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어머니를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점수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부모에 대해 따뜻함과 유능함을 더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².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상관 관계

다음으로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과 자녀 행복 간의 상관 분석 및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녀의 관점에서는

²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자녀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p = .179$), 자녀들이 아버지 스스로의 평가보다 더 강하게 아버지의 따뜻함을 지각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가 자기 보고한 실제 행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녀의 관점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와 자녀의 실제 행복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표 5 참조).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과 자녀의 실제 행복 간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r = .639$, $p < .001$)과 유능함($r = .529$, $p < .001$)은 모두 아들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모자 관계에서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r = .396$, $p < .001$)과 유능함($r = .525$, $p < .001$)이 모두 아들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녀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도 딸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r = .390$, $p < .001$)과 유능함($r = .362$, $p < .001$),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r = .356, p < .001$)과 유능함($r = .387, p < .001$) 모두 딸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따뜻하고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표 4. 아들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들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639**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529**	.678**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96**	.557**	.433**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525**	.729**	.558**	.534**

** $p < .001$, * $p < .05$.

표 5. 딸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딸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390**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362**	.484**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56**	.396**	.558**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387**	.593**	.481**	.645**

** $p < .001$, * $p < .05$.

부모의 관점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과 부모가 예측하는 자녀의 행복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표 6, 표 7 참조). 그 결과, 변수들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가 예측한 아들과 딸의 행복과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r_{\text{아들}} = .257, p < .001, r_{\text{딸}} = .349, p < .001$)과 유능함($r_{\text{아들}} = .396, p < .001, r_{\text{딸}} = .513, p < .001$)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과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r_{\text{아들}} = .476, p < .001, r_{\text{딸}} = .530, p < .001$)과 유능함($r_{\text{아들}} = .325, p < .001, r_{\text{딸}} = .273, p < .05$)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들은 스스로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표 6.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631**		
3 아버지의 따뜻함	.257*	.349**	
4 아버지의 유능함	.396**	.513**	.603**

** $p < .001$, * $p < .05$.

표 7.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746**		
3 어머니의 따뜻함	.476**	.530**	
4 어머니의 유능함	.325**	.273*	.399**

** $p < .001$, * $p < .05$.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자녀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부모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스스로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두 차원 중 어느 차원이 자녀의 행복에 더 중요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을 동시에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이 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로 구분하여 총 4번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8, 표 9 참조). 예를 들면, 부자 관계에서는 예측 변인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두고, 종속 변인을 아들의 행복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B_{\text{아들}} = .683, p < .001, B_{\text{딸}} = .420, p = .001$)은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아버지에게 지각한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즉,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아버지를 유능하게 지각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유능함($B_{\text{아들}} = .432$, $p = .001$, $B_{\text{딸}} = .318$, $p < .05$)은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은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즉, 자녀들은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추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1 참조). 즉,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정리해 보면,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의 행복에 있어서 아버지에게는 지각된 유능함보다는 지각된 따뜻함이 더 중요하며, 어머니에게는 지각된 따뜻함보다 지각된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8.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683**	.566**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012	-.101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420*	.371*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177	.169

** $p < .001$, * $p < .05$, † $p < .1$.

표 9.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67	.199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432*	.473*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85	.221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318*	.400*

** $p < .001$, * $p < .05$, † $p < .1$.

표 10. 자녀의 행복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115	.133
	자기 보고한 유능함	-.181	-.182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59	.074
	자기 보고한 유능함	.167	.174

** $p < .001$, * $p < .05$, † $p < .1$.

표 11. 자녀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095	-.118
	자기 보고한 유능함	.019	.024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59	.079
	자기 보고한 유능함	.026	.037

** $p < .001$, * $p < .05$, † $p < .1$.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자녀의 관점에서 종속 변인을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첫 번째 문항으로 두고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비교하였다.

자녀의 관점

이전 회귀 분석과 동일하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로 구분하여 총 4번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2, 표 13 참조). 예를 들면, 부자 관계에서는 예측 변인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두고, 종속 변인을 아들의 행복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자 관계와 부녀 관계 모두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지각한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B_{\alpha/들} = .538, p < .001, B_{딸} = .281, p < .05$)은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딸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유능함($B = .226, p = .063$) 또한 딸의 행복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다. 모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어머니에게 지각한 유능함($B = .438, p < .001$)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모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B = .269$, $p = .058$)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즉,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분석했을 때와 동일하게,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538**	.521**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164	.178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281*	.278*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226†	.242†

** $p < .001$, * $p < .05$, † $p < .1$.

표 13.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62	.211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438**	.546**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82	.228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269†	.359†

** $p < .001$, * $p < .05$, † $p < .1$.

부모의 관점

부모의 관점 또한 자녀의 관점과 동일하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로 구분하여 총 4 번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4, 표 15 참조). 예를 들어, 부자 관계에서는 예측 변인을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두고, 종속 변인을 아버지가 예측한 아들의 행복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자 관계와 부녀 관계 모두에서 아버지가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B_{\text{아들}} = .378, p < .001, B_{\text{딸}} = .478, p < .05$)은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반면, 모자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는 부자 및 부녀관계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B_{\text{아들}} = .396, p < .001, B_{\text{딸}} = .504, p < .001$)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즉, 아버지는 본인을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행복 예측에 있어서 본인의 유능함이 따뜻함에 비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행복 예측에 있어서 본인의 따뜻함이 유능함에 비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14. 아들 행복에 대한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아들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28	.030
	자기 보고한 유능함	.378**	.335**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396**	.510**
	자기 보고한 유능함	.167	.238

** $p < .001$, * $p < .05$.

표 15. 딸 행복에 대한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딸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64	.072
	자기 보고한 유능함	.475**	.460**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504**	.666**
	자기 보고한 유능함	.071	.103

** $p < .001$, * $p < .05$.

논의

연구 1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사회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의 관점을 추가하여 부모가 스스로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그러한 지각이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임으로써 자녀와 부모간 자녀 행복에 대한 견해 차를 밝혔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는 따뜻함에 비해 유능함을, 어머니에게는 유능함에 비해 따뜻함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따뜻하기보다는 유능한 사람, 어머니는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모들은 모두 스스로를 유능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우선 부모의 관점을 살펴 보면, 자녀 행복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인의 따뜻함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행복 예측과 관련이 없었다. 반면,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인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행복 예측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 관념(sex role stereotype)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잘 부합하는 결과이다. 사회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자는 집안의 기둥으로서 높은 지위의 역할을 가지며, 여자는 가정 주부로서 낮은 지위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Eagly, 1987). 또한, 대다수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공감적 특성(communal characteristic) 혹은 도구적 특성(agentive characteristic)에 속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공감적 특성은 주로 타인의 복지(welfare)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애정적이고, 도움을 주며, 친절하고, 다정하며, 대인관계적으로 예민한 것 등과 관련된다. 반면, 남성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적 특성은 주로 단언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경향성으로 공격적이고, 야망적이며,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띤다(Bakan, 1966; Eagly & Karau, 2002). 즉, 사회 역할 이론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의 구분, 그리고 공감적 특성과 도구적 특성의 구분은 사회

지각에서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 구분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자녀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연구 1 이 잘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는 부모가 예측한 것과 정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실제 행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또한, 아버지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또한,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자녀들은 어머니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자녀의 행복에 대한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의 효과와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의 효과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종합 논의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러나 연구 1 은 자녀들이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부모를 지각하고 그러한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또한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밝힌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더 어린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족에게서도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나이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급변하는 시기이다(Paikoff & Brooks-Gunn, 1991). 따라서, 중학생 가족과 대학생 가족 간에는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2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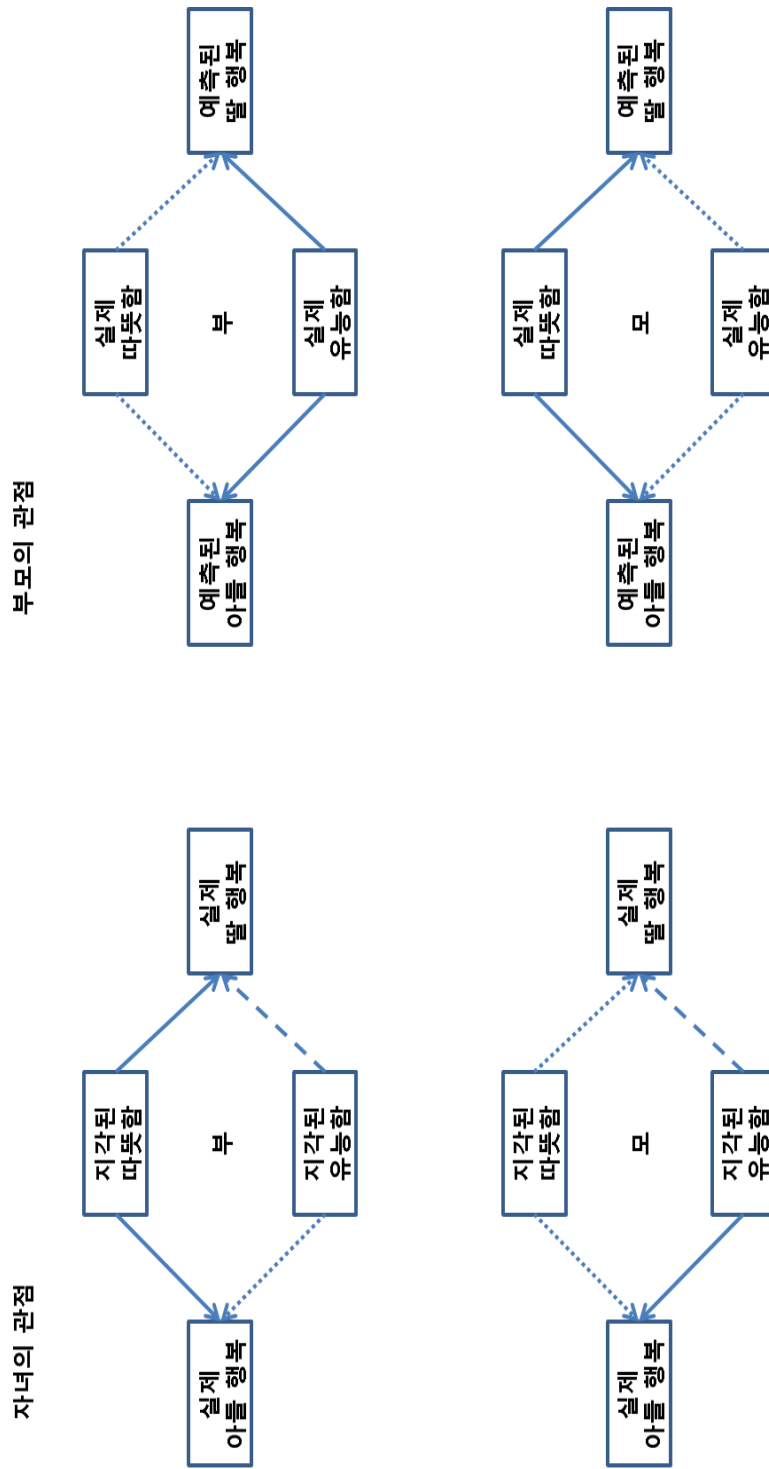


그림 4.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Notes. 점선: $p < .05$, 파선: $p < .1$, 점선: ns

연구 2

방법

참가자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가 모집 광고를 통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총 53가족(금호중: 13가족, 월곡중: 40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때 자녀의 연령은 연구 1의 가족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중학생 이하로 제한하였다. 연구 사례비는 가족당 2만원을 받았다. 참가자의 연령 특성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 참가자 연령 특성

참가자 연령 특성	부	모	자	녀
N	53	53	53	53
평균	44.58	41.10	13.71	13.98
표준편차	3.63	3.41	1.71	1.59
범위	36-54	35-53	10-16	9-16

절차 및 도구

설문지 배분 및 수거

중학생 가족들은 자녀 연령의 특성 상, 연구에 참여한 모든 가족이 학교 주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주거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중학교에 근무하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 일괄적으로 설문지를 배분하고 수거하였다. 연구자는 담임 선생님에게 가족 별로 설문지가 동봉되어 있는 봉투를 우선 보내고, 담임 선생님이 그 봉투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동봉되어 학생을 통해 담임 선생님에게 수거되었고 제출된 설문지는 다시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수거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하였고, 연구자 또한 부모에게 문자를 통해 설문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측정 도구

따뜻함과 유능함의 측정 및 행복의 측정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결과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

자녀의 관점

연구 1 에서와 동일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 점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된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7 참조). 피험자 내 변인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특성(따뜻함 대 유능함)을 두고, 피험자 간 요인으로 자녀의 성별을 두고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나누어 각 1 번씩 총 2 번 시행하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F(1, 98) = 2.989, p = .085$). 즉,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유능함($M_{\text{아들}} = 5.00, M_{\text{딸}} = 5.16$)보다 따뜻함($M_{\text{아들}} = 5.18, M_{\text{딸}} = 5.32$)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별의 주 효과($F(1, 98) = .436, p = .510$)와 지각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 98) = .016, p = .900$).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유능함($M_{\text{아들}} = 5.00,$

$M_{\text{딸}}=5.17$)보다 따뜻함($M_{\text{아들}}=5.58$, $M_{\text{딸}}=5.72$)을 더 지각하는 주
 효과($F(1, 98)= 40.360$, $p< .001$)가 나타났다. 반면, 성별의 주
 효과($F(1, 98)= .472$, $p= .494$)와 지각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1, 98)= .007$, $p= .935$)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 가족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7. 자녀(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따뜻함		유능함	<i>p</i>	따뜻함		유능함	<i>p</i>
아들	5.18	>	5.00	.175	5.58	>	5.00	.000
	(1.35)		(1.11)		(1.19)		(1.10)	
딸	5.32	>	5.16	.283	5.72	>	5.17	.000
	(1.27)		(.97)		(1.22)		(1.05)	
평균	5.25	>	5.08	.085	5.65	>	5.08	.000
값	(1.31)		(1.04)		(1.20)		(1.07)	
	√		√	.045(.00	√		√	.000(.00
				0)				0)
아버지	5.00(.8	>	4.47(.9	.002	-		-	
지	2)		3)					
어머니	-		-		4.99(1.0	>	4.20(.8	.000
니					4)		2)	

Notes. 부등호는 평균 값 크기 비교를 의미하며, *p* 값은 차이 검증의 유의 수준을 의미한다.

부모의 관점

부모 또한,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성별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두고 혼합된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 98) = 42.175$, $p < .001$). 즉, 부모는 스스로에 대해 유능함($M_{\text{아버지}} = 4.47$, $M_{\text{어머니}} = 4.20$)보다 따뜻함($M_{\text{아버지}} = 5.00$, $M_{\text{어머니}} = 4.99$)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성별의 주 효과($F(1, 98) = 1.095$, $p = .324$) 및 지각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1, 98) = 1.891$, $p = .172$)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관점과 비교해 보면, 중학생 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며, 부모 또한 스스로에 대해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에 대해 더 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 자녀 모두 부모의 유능함보다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보다 더 강하게 부모에게 따뜻함과 유능함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

다음으로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과 자녀 행복 간 상관 분석 및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자녀의 관점

먼저 상관분석 결과, 아들과 부모의 변수들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표 18, 표 19 참조). 부자 관계에서는 아들의 행복은 아들에게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의 관계($r = .647, p < .001$)와 아들에게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의 관계($r = .580, p < .001$) 모두에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자 관계에서도 아들의 행복과 아들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r = .541, p < .001$)과 아들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r = .474, p < .001$) 모두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딸의 경우에는 딸의 행복과 딸에게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r = .532, p < .001$) 및 딸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r = .353, p < .05$)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표 18. 아들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들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647**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580**	.747**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474**	.667**	.684**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541**	.708**	.751**	.713**

** $p < .001$, * $p < .05$.

표 19. 딸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딸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239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532**	.646**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53*	.585**	.542**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248	.712**	.731**	.704**

** $p < .001$, * $p < .05$.

부모의 관점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 유능함과 부모가 예측하는 자녀의 행복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표 20, 표 21 참조). 먼저 어머니의 경우, 변수들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r_{\text{아들}} = .492, p < .001, r_{\text{딸}} = .513, p < .001$)하고 유능($r_{\text{아들}} = .443, p < .001, r_{\text{딸}} = .390, p < .001$)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본인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행복 예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반면,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r_{\text{아들}} = .401, p < .001, r_{\text{딸}} = .358, p < .001$).

표 20.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829**		
3 아버지의 따뜻함	.401**	.358**	
4 아버지의 유능함	.235	.245	.154

** $p < .001$, * $p < .05$.

표 21.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830**		
3 어머니의 따뜻함	.492**	.513**	
4 어머니의 유능함	.443**	.390**	.518**

** $p < .001$, * $p < .05$.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이러한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2, 표 23). 먼저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 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B = .320$, $p = .063$)과 유능함($B = .368$, $p = .033$)은 모두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반면, 부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B = .614$, $p < .001$)은 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모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B = .556$, $p = .002$)은 아들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모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B = .334$, $p = .081$)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행복을 예측했다. 즉,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이 아들의 행복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한 것을 제외하면,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아들, 딸의 행복에 대한 효과가 정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추가 분석을 해 본 결과(표 24, 표 25 참조), 부녀 관계에서의 아버지의 유능함($B = .285, p = .044$)과 모자 관계에서 어머니의 유능함($B = .299, p = .077$)이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딸과 아들의 행복을 예측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부모의 자기 평가와 자녀의 행복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행복에는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가족에서는 아들과 딸이 같은 양상을 보였음에 반해, 중학생 가족에서는 아들과 딸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하였다.

표 22.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320*	.282*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368*	.397*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096	-.104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614**	.883**

** $p < .001$, * $p < .05$, † $p < .1$.

표 23.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054	.053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556*	.593*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34†	.387†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070	.094

** $p < .001$, * $p < .05$, † $p < .1$.

표 24. 자녀의 행복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149	.216
	자기 보고한 유능함	.084	.108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227	-.391
	자기 보고한 유능함	.285*	.432*

** $p < .001$, * $p < .05$, † $p < .1$.

표 25. 자녀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140	-.160
	자기 보고한 유능함	.299	.439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62	.083
	자기 보고한 유능함	.126	.213

** $p < .001$, * $p < .05$, † $p < .1$.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녀의 관점에서 종속 변인을 1개 문항으로 측정한 행복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6, 표 27, 표 28, 표 29 참조).

자녀의 관점

부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B = .484$, $p = .005$)은 아들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부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B = .627$, $p < .001$)은 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모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B = .478$, $p = .008$)은 아들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모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B = .353$, $p = .069$)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즉, 종속 변인을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평균값으로 두고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표 26.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구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484**	.527**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219	.290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147	-.178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627**	1.000**

** $p < .001$, * $p < .05$, † $p < .1$.

표 27.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33	.164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478**	.639**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53†	.457†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001	-.001

** $p < .001$, * $p < .05$, † $p < .1$.

부모의 관점

전반적으로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지만,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경우,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자신이 예측한 아들,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자신이 예측한 아들, 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B_{\text{아들}} = .374, p = .007, B_{\text{딸}} = .328, p = .019$).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어머니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_{\text{아들}} = .359, B_{\text{딸}} = .426$). 다만,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이 아들의 행복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다($B = .257, p = .081$).

표 28. 아들의 행복에 대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아들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374*	.524*
	자기 보고한 유능함	.178	.217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359*	.563*
	자기 보고한 유능함	.257†	.329†

** $p < .001$, * $p < .05$, † $p < .1$.

표 29. 딸의 행복에 대한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딸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328*	.463*
	자기 보고한 유능함	.195	.239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426*	.481*
	자기 보고한 유능함	.169	.243

** $p < .001$, * $p < .05$, † $p < .1$.

논의

연구 2 는 대학생 가족이 아닌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도 스스로를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아들의 경우 부모를 모두 따뜻하고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을 보였으며, 딸의 경우 아버지를 유능하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을 보였다. 즉, 딸 행복의 경우 아들 행복의 경우와 달리,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과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이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음에 반해, 아버지는 본인의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과 관계 없고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회귀 분석 결과는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종합하여 그림 5 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관점을 살펴 보면, 부모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실제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³.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부모가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⁴. 즉, 부모들은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 반해, 본인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 예측과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는 연구 1 논의 부분에서 설명한 사회 역할 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녀의 나이에 따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2에 참가한 자녀들은 10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청소년들이다. 이 연령의 어린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많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Paikoff & Brooks-Gunn, 1991).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춘기 시기에는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도 멀어지며, 선택에 있어 부모에게 양보하는 것도 줄어드는 시기이다. 또한, 자녀에게 있어

³ 부녀 관계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5$)에서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유능함이 딸의 실제 행복을 예측하기는 하였다.

⁴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이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1$)에서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기는 하였다.

가족의 기능도 가장 불만족스러워지며, 부모와의 갈등도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Montemayor & Hanson, 1985;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an, & Wilson, 1983; Steinberg, 1987; Youniss & Smollar, 1985).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들 둔 아버지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며, 실제로 그러한 따뜻함이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과 예측한 자녀의 행복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한편, 자녀의 실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를 살펴 보면, 부자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는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녀 관계와 모자 관계에서는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예측한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모녀 관계에서도 어머니가 예측한대로 딸은 어머니를 따뜻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반면, 부녀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자신이 따뜻할수록 딸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또한 모자 관계에서도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사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성간 조합인 부자 관계 및 모녀 관계에서 행복에 대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성간 조합인 부녀 관계 및 모자 관계에서 행복에 대한 불일치하는 경향성이 발견된 것은 Belenky 와 그의 동료들 1986)의 연구 결과와 일정 부분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들은 자녀들이 타인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knowing)을 연결된 알기(connected knowing)와 분리된 알기(separate knowing)로 구분하였다. 연결된 알기는 모녀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자기(self)와 대상(object) 간의 친밀감(intimacy)와 동일감(equality)이 요구되는 반면, 분리된 알기는 부녀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거리감(distance)과 이질감(impersonality)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은 동성인 아버지에게, 딸은 동성인 어머니에게 친밀감과 동일감으로 인해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동일하게 행복감이 영향 받는 모습을 보이며, 부녀 혹은 모자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감과 이질감으로 인해 부모의 인식과 불일치하게 행복감이 영향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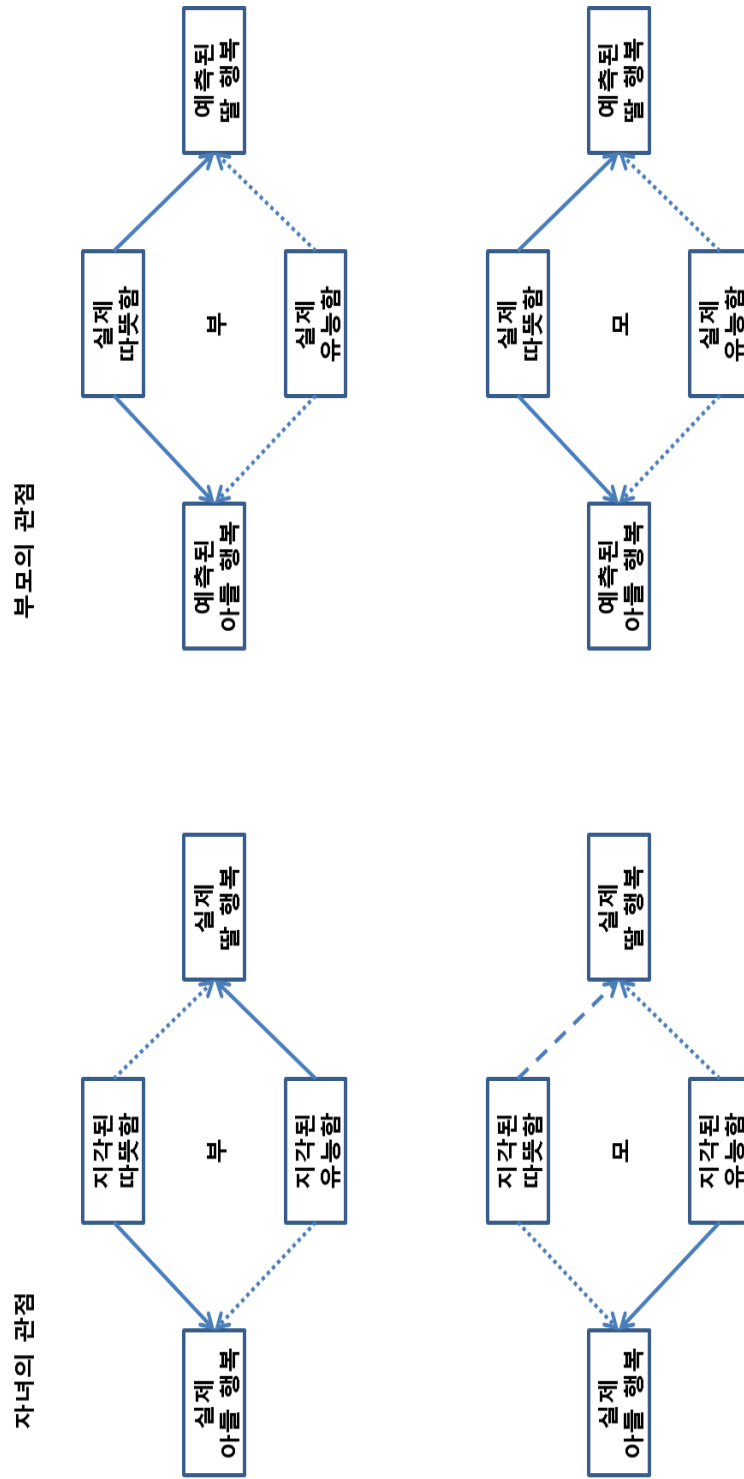


그림 5.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Notes. 실선: $p < .05$, 파선: $p < .1$, 점선: ns

종합 논의

본 논문의 목적은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즉,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자녀의 관점)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에 대한 효과(부모의 관점)로 구분하여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된 2 개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90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부모들은 아버지의 경우, 본인을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 반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녀는 아버지에게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어머니에게는 따뜻함보다는 유능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딸의 경우,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58$)에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대상 가족의 연령층을 낮춰, 중학생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53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 가족의 부모들은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들의 행복과 관계가 없었다. 한편,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아들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에게는 따뜻함보다는 유능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따뜻하기보다는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대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와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의 결과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의 관점에서 어머니들은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모두에서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들이 예측한 자녀들의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반면, 아버지들은 중학생 가족에서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대학생 가족에서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아버지들은 가족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 행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이는 연구 1 과 연구 2 의 논의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더불어 사춘기 자녀의 연령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아버지는 유능함, 어머니는 따뜻함의 차원이 자녀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사춘기 연령의 자녀의 특성 상, 자신의 따뜻함이 유능함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사춘기 때 가장 높다가 18 세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Montemayor, 1983). 따라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달리 자녀의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의 행복에 대한 신념이 변화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가능성도 있다. 부모의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자녀 행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대학생 가족의 부모 세대와 중학생 가족의 부모 세대 간에

세대 간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가족 부모의 나이와 중학생 가족 부모의 나이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t(124)_{\text{아버지}} = 10.838, p < .001, t(123)_{\text{어머니}} = 12.607, p < .001$). Bigner(1979)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진보적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전통적 개념에서는 ‘아버지는 항상 옳고 강하다’, ‘자녀가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처럼 따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술된 반면, 진보적 개념에서는 ‘아동과 그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동과 자신의 개성을 인식한다’ 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술된 바 있다. 따라서, 세대가 변화함에 따른 자녀 행복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녀들의 관점에서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을 비교해보면, 우선 아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즉, 아들은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모두에서 아버지에게는 따뜻함을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어머니에게는 유능함을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반면,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부녀 관계에서 중학생 가족의 딸들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하였지만, 대학생 가족의 딸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다음, 모녀 관계에서 중학생 가족의 딸들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지만, 대학생 가족의 딸들은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아들의 실제 행복에 대한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의 일관된 효과는 기존 선행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하는 남자 대학생들은 아버지와의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Komarovsky, 1976), 아버지의 개입(involvement)과 돌봄(nurturance)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함과, 내적 통제 소재 그리고 공감 능력과 정적으로 연관되며(Lamb, 1987; Radin & Russell, 1983), 어린 시절 아버지와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각했던 성인들의 웰빙이 높았다(Amato, 1994). 특히, Fluori 와 Buchanan(2003)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개입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개입(father involvement)이 자녀들의 삶 만족감에 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능함보다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들의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간의 일관적인 모자 관계의 모습과 변화하는 부녀 관계 및 모녀 관계의 모습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Russel 과 Saebel 의 리뷰 논문(1997)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는 4 가지의 별개의(distinct) 관계이다. 따라서, 각 관계에 따른 자녀 행복에 미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달랐으며, 이에 대한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 있는 발견은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 자녀간에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 가족의 아들의 경우만 제외하면,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관점과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감정 예측 오류(affective forecasting error)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감정 예측 오류란 사람들이 미래 감정의 유인가(valence), 경험하게 될 특정 정서, 정서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정서의 지속성(duration) 등에 대해서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Wilson & Gilbert, 2003). 예를 들어, 사람들은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애인과 헤어지거나 혹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팀이 선거나 경기에서 패했을 때,

중요한 인터뷰에서 실패하였을 때, 혹은 반대로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때, 느끼게 될 정서를 실제보다 더 강하고 더 길게 지속될 것이라고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Gilbert & Wilson, 2000; Kahneman & Snell, 1992; Loewenstein et al., 2003; Mellers & McGraw, 2001; Wilson & Gilbert, 2003). 대부분의 연구들은 본인의 감정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 예측할 때도 오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부모들은 본인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행복 예측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지각과 정서에 대한 연구 및 부모와 자녀관계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각과 지각자인 당사자의 정서를 확인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지각자인 자녀가 대상인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그것이 자녀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는 사회 지각 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지각자의 행복과 특히, 자녀의 행복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 간에 발생하는 사회 지각의 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 지각과 지각자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상사와 부하,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연인 및 부부 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취하는 태도 및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실용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에 대한 인식이 정 반대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성 고정관념에 따라 아버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하는 것 즉, 유능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어머니는 가정적이고 너그럽고, 온화한 즉, 따뜻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아버지는 자녀에게 따뜻한 아버지로 지각되는 것이,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유능한 어머니로 지각되는 것이 자녀가 실제 행복해 지는데 더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취하는 태도와 행동을 다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여러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더 다양하고 많은 피험자를 상대로 행복에 대한 사회 지각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더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학생 가족의 경우 피험자 수가 53 가족으로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에 따른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2 개의 연구를 통해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지각하는 것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에 대한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의 효과는 관련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학문적인

의의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취하는 태도와 행동 등에도 많은 시사점을 갖게 해 주는 주제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지각자의 행복에 대한 사회 지각의 효과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후속 연구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Aaker, J., Vohs, K. D., & Mogilner, C. (2010). Nonprofits Are Seen as Warm and For-Profits as Competent: Firm Stereotypes Matt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224-237.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31-1042.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E. (2000).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23(2), 205-222.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Chicago: Rand McNally.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p2), 1.

- Baumrind, Diana.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96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esser, A., & Priel, B. (2003). A multisource approach to self-critical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515–555.
- Block, J., & Haan, N. (1971). *Lives through time*. Lawrence Erlbaum.
- Cabrera, N.,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astelli, L., Carraro, L., Ghitti, C., & Pastore, M.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bility on electoral outco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5), 1152–1155.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8). Warmth and competence as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The stereotype content model and the BIAS map.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61-149.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
- Deci, E. L., & Ryan, R. M. (1991, August).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p. 237-288).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H., & Karau, S. J. (2002). Role congruity theory of prejudice toward female leaders. *Psychological review*, 109(3), 573.
- Field, T., Lang, C., Yando, R., & Bendell, D. (1995). Adolescents' intimacy with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30: 133–140.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 Involvement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3), 399–406.
- Freedman, M. B., Leary, T. F., Ossorio, A. G., & Coffrey, H. S.

- (1951). The interpersonal dimen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0*, 143–161.
- Gonzalez, A., Holbein, M., & Quilter, S. (2002). High school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 450–471.
- Hemingway, G. H. (1988). *Papa: A Personal Memoir*. Paragon House.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6), 733–753.
- Judd, C. M., James-Hawkins, L., Yzerbyt, V., & Kashima, Y. (2005). Fundamental dimensions of social judgment: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judgments of competence and warm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99.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5702), 1776–1780.

Karavasilis, L., Doyle, A., & Markiewicz, D. (2003).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attachment to mother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53–164.

Komarovsky, M. (2004). *Dilemmas of masculinity: A study of college youth* (Vol. 7). Rowman Altamira.

Lamb, M. E. (1987). Introduction: The emergent American father.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Lasko, D. S., Field, T. M., Gonzalez, K. P., Harding, J., Yando, R., &

- Bendell, D. (1996). Adolescent depressed mood and parental unhappiness. *Adolescence* 31: 49-57.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1-101.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 Myers, D. G.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Who is happy--and why*. W. Morrow.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ontemayor, R., & Hanson, E. A. (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3–30.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Muxan, M. J.,
& Wilson, M.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Radin, N., & Russell, G. (1983). Increased father participation and
child development outcomes. *Fatherhood and family policy*,
191–218.

Reis, S., & Grenyer, B. F. S. (2002). Pathways to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5, 445–459.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283.

Ryan, R. M., & Deci, E. L. (2000).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Shulman, S., Elicker, J., & Sroufe, L. A. (1994). Stages of friendship growth in preadolescence as related to attachment histor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3), 341–361.

Steinberg, L. D. (1987). The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51–460.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Symonds, P. W.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821-829.*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Wilson, T. D., & Gilbert, D. T. (2003). Affective forecasting.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345-411.*

Wojciszke, B., Bazinska, R., & Jaworski, M. (1998). On the dominance of moral categories in impression 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251-1263.*

Wojciszke, B. (1994). Multiple meanings of behavior: Construing

actions in terms of competence or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222.

Wojciszke, B. (2005). Morality and competence in person-and self-percep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1), 155-188.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1] 아버지의 따뜻함, 유능함 측정 문항(자녀 설문지)

다음은 아버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려 보고 아버지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따뜻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따뜻하다

2.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너그럽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너그럽다

3.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상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상냥하다

4.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친절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친절하다

5.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가정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가정적이
않다						다

6.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유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유능하다

7.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경쟁심이			보통			경쟁심이
강하지 않			이다			강하다
다						

8.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똑똑하지			보통			똑똑하다
않다			이다			

9.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능력 있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능력 있다

10.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성공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성공적이
않다						다

[부록2] 어머니의 따뜻함, 유능함 측정 문항(자녀 설문지)

다음은 어머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머니를 떠올려 보고 어머니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따뜻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따뜻하다

2.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너그럽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너그럽다

3.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상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상냥하다

4.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친절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친절하다

5.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가정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가정적이
않다						다

6.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유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유능하다

7.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경쟁심이			보통			경쟁심이
강하지 않			이다			강하다
다						

8.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똑똑하지			보통			똑똑하다
않다			이다			

9.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능력 있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능력 있다

10.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성공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성공적이
않다						다

[부록3]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 측정 문항(부모 설문지)

다음은 귀하 본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인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보통		매우
따뜻하지		이다		따뜻하다
않다				

2. 귀하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보통		매우
너그럽지		이다		너그럽다
않다				

3. 귀하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상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상냥하다

4. 귀하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친절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친절하다

5. 귀하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가정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가정적이
않다						다

6. 귀하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유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유능하다

7. 귀하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경쟁심이			보통			경쟁심이
강하지 않			이다			강하다
다						

8. 귀하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똑똑하지			보통			똑똑하다
않다			이다			

9. 귀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능력 있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능력 있다

10. 귀하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성공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성공적이
않다						다

[부록 4] 자녀 행복 측정 문항(자녀 설문지)

아래의 문장과 질문을 읽고, 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매우 _____ 라고 생각한다.

1-----2-----3-----4-----5-----6-----7

행복한

보통

행복한

사람이

이다

사람이다

아니다

2.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_____.

1-----2-----3-----4-----5-----6-----7

덜

보통

더

행복하다

이다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당신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1-----2-----3-----4-----5-----6-----7

전혀		보통		정말
그렇지 않		이다		그렇다
다				

4.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행**합니다. 비록 우울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성격이 그렇습니까?

1-----2-----3-----4-----5-----6-----7

전혀		보통		정말
그렇지 않		이다		그렇다
다				

[부록 5] 자녀 행복 측정 문항(부모 설문지)

다음은 가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족들을 떠올려 보고 가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1-----2-----3-----4-----5-----6-----7

전혀						
행복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행복하다

2. 귀하의 딸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1-----2-----3-----4-----5-----6-----7

전혀						
행복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행복하다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parents' warmth and competence on the children's happiness

Xyle Ku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 are primarily perceived along two fundamental dimensions: warmth and competenc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investigated how perceptions of people's warmth and competence affect perceivers' affective reactions to targets. Howev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warmth and competence and happiness are lacking. Furthermore, no previous study has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warmth and competence on the children's happiness. The present studies address this gap in the literature by investigating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s in families consisting of a father, mother, son and daughter. The familie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1 and the famil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2.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possess inaccurate forecasts regarding which dimension contributes to the children's happiness. In Study 1, fathers forecasted that their competence would contribute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mothers indicated that their warmth would contribute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However, children were happier when they perceived more warmth in their fathers and more competence in their mothers. In Study 2, parents forecasted that their warmth would contribute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except in the father-son relationship and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ere were yet again differences between the dimension that the parents' predicted to be important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the dimension that actually predicted the children's happi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warmth and competence are important to children's happiness and tha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parents' forecasts regarding the dimensions that make their children happy and the dimensions that actually predict children's happiness.

Keywords. parents, children, social perception, warmth, competence, happiness

Student number: 2013-22493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사회심리 전공
구 자 일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최 인 철




이 논문을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사회심리 전공
구 자 일

구자일의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金 清澤 
부위원장 고 성 룡 
위 원 최 인 철 

초록

대인 지각은 따뜻함(warmth)와 유능함(competence)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이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이 자녀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2에서는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 행복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었다. 연구 1에서는 아버지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부모는 모두 자신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부자 관계, 모녀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서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실제 행복 간에 불일치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인식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부모, 자녀, 사회 지각, 따뜻함, 유능함, 행복

학번: 2012-22493

목차

서론.....	1
.	
연구 1.....	22
방법.....	22
결과.....	27
논의.....	49
연구 2.....	54
방법.....	54
결과.....	56
논의.....	75
종합논의.....	81
참고문헌.....	91
부록.....	102
영문초록.....	117

서론

2001 년 9 월 25 일 미국 마이애미의 한 공원에서 한 늙은 여자가 여자 옷과 하이 힐을 들고 있다가 외설(indecent exposure)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으로 다름 아닌,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의 아들 그레고리 헤밍웨이(Gregory Hancock Hemingway)였다. 그레고리 헤밍웨이는 유능하고 성공한 아버지였지만 자신에게 따뜻하지 않았던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그가 집필한 책 ‘아빠: 개인적 회고(Papa: A Personal Memoir)’에서 고백했다(Hemingway, 1988). 이 사건은 아버지의 유능함보다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자녀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뜻함(warmth)과 유능함(competence)은 사회 지각(social perception)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주제이다(Judd, James-Hawkins, Yzerbyt, & Kashima, 2005). 사람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대상을 지각한다(Asch, 1946; Cuddy, Fiske, & Glick, 2008; Fiske, Cuddy, & Glick, 2007; Fiske, Cuddy,

Glick, & Xu, 2002; Judd, et al., 2005; Peeters, 2002; 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Wojciszke, 1994). 예를 들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은 적게 지각하고 유능함은 많이 지각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능함은 적게 지각하고 따뜻함은 많이 지각한다(Fiske, et al., 2002).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은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표 1 참조).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따뜻함의 정도(따뜻한, 차가운)와 유능함의 정도(유능한, 무능한)에 따른 대상에 대한 지각이 대상에 대한 존경심(admiration), 혐오심(contempt), 시기심(envy), 그리고 동정심(pity)의 4 가지 각기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킴을 밝히고 있다(Cuddy, Fiske, & Glick, 2004; Cuddy, Fiske, & Glick, 2007; Fiske, Cuddy, & Glick, 2002a,b). 이 연구들에 따르면, 존경심은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이나 내집단(ingroup)처럼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이고, 혐오심은 복지 수령자와 같은 낮은 지위와 기식(free-loading)의 특성을 보이는 즉, 따뜻함과 유능함을 모두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 대해 느끼게 되는 정서이다. 한편, 사람들은 노인과 장애인처럼 따뜻하지만 무능해 보이는 집단에게는 동정심을, 부유한

사람들이나 외집단(outgroup)처럼 유능하지만 차가워 보이는 집단에게는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은 대상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은 따뜻하고 유능하게 지각되는 집단에게는 돕기(helping)와 같은 능동적(active) 행동과 제휴(associating)와 같은 수동적(passive) 행동을 취하게 되는 반면, 차갑고 무능하게 지각되는 집단에게는 괴롭힘(harassing)과 같은 능동적 행동과 무시(neglecting)와 같은 수동적 행동을 취하게 된다(Cuddy, et al., 2007).

표 1. 지각된 따뜻함과 유능함에 따른 사회 집단들(social groups)의 4 가지 분류.

따뜻함 차원	유능함 차원	
	무능한	유능한
따뜻한	<p>온정적 편견</p> <p>낮은 지위, 경쟁적인 동정심, 연민</p> <p>(e.g., 노인, 장애인, 주부)</p>	<p>존경심</p> <p>높은 지위, 경쟁적이지 않은 자부심, 존경심</p> <p>(e.g., 내집단, 가까운 협력자)</p>
차가운	<p>경멸적 편견</p> <p>낮은 지위, 경쟁적이지 않은 경멸, 혐오, 분노, 적의</p> <p>(e.g., 복지 수령자, 가난한 사람)</p>	<p>시기적 편견</p> <p>높은 지위, 경쟁적인 시기심, 질투심</p> <p>(e.g., 아시아인, 유대인, 부유한 사람, 페미니스트)</p>

Notes. Fiske, Cuddy, Glick, & Xu(2002)논문에서 인용.

이처럼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에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서 경험과 더불어, 대상에 대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과 지각자의

행복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타인과의 관계는 행복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심리학자들은 관계성(relatedness)을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또한 타인에게서 사랑 받고 보호 받기 위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려는 욕구로 정의하며, 행복에 대한 관계성의 중요성에 대해 밝혀왔다(Baumeister & Leary, 1995; Bowlby, 1958; Deci & Ryan, 1991; Diener & Seligman, 2002; Harlow, 1958;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z, & Stone, 2004; Myers, 1992; Ryan & Deci, 2000; Ryan, 1993). Ryan 과 Deci 의 연구(2000)에 의하면, 관계성(relatedness)은 자율성(autonomy)과 유능성(competence)과 함께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psychological needs) 중 하나로 평가되며, 사람은 관계성이 충족되어야 더 많은 성장(growth), 통합(integrity), 그리고 웰빙(well-being)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222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상위 10%의 학생들(very happy people)과 불행한 하위 10%의 학생들(very unhappy people)을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상위 10%의 학생들이 하위 10%의 학생들보다 가족, 연인, 친구와 더 강한 유대감을 갖고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 Seligman, 2002). 또한,

대인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했으며(Myers, 1992), 사람들은 상사, 직장동료 등과 있을 때보다 부모, 형제/친지, 친구, 배우자 등의 중요한 타인과 있을 때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Kahneman, et al, 2004). 이처럼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은 지각자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사람이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예상하게 한다. 애착(attachment) 이론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에 있어 영아기 때의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Waters 와 그의 동료들(1979)이 종단 연구를 통해 15 개월된 영아의 애착의 질과 영아들이 3 세 반이 되었을 때의 유능감(competence)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안정된 애착을 보였던 영아들이 그렇지 않았던 영아들에 비해, 3 세 반이 되었을 때 유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시절의 애착의 질은 11, 12 세가 된 아이들의 또래 유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Shulman,

Elicker, & Sroufe, 1994). 한편, 불안정한 애착이 우울감을 예측하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어 왔다(Besser & Priel, 2003; Reis & Grenyer, 2002). 애착 이론 이외에도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질이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Block, 1971; Herman-Stahl & Peterson, 1996; Lasko, Field, Gonzalez, Harding, Yando, & Bendell, 1996; Field, Lang, Yando, & Bendell, 1995). 예를 들어, 부모와 높은 친밀도를 보인 청소년들이 높은 자존감과 행복감, 그리고 적은 우울감을 보였으며(Lasko, et al., 1996; Field, et al., 1995), 더 적응적(well-adjusted)이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rman-Stahl & Peterson, 1996). 또한 잘 적응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따뜻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lock, 1971).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는 자녀의 행복 및 긍정적 발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사회 지각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던 지각자의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자녀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사회 지각의 근본적 차원: 따뜻함과 유능함

타인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사회 지각은 사람들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Cuddy, Fiske, & Glick, 2008).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의도대로 타인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야 타인의 행동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우호적인(friendly), 도움을 주는(helpful), 진실된(sincere), 도덕적인(moral) 등의 특질을 포함하는 따뜻함(warmth) 차원은 지각된 타인의 의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며, 지적인(intelligent), 숙련된(skillful), 창의적인(creative) 등의 특질을 포함하는 유능함 차원은 타인의 능력을 지각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Fiske, Cuddy, & Glick, 2007). 따라서,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은 사회 지각에 있어서 대단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들은 따뜻함(warmth)과 유능함(competence)의 차원이 사회 지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두 차원이라는 사실을 밝혀 왔다(Asch, 1946; Cuddy, Fiske, & Glick, 2008; Fiske, Cuddy, & Glick, 2007; Fiske, et al., 2002; Judd, et al., 2005; Peeters, 2002; Rosenberg, Nelson, & Vivekananthan, 1968; Wojciszke, 1994). 즉, 사람들은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는 목적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능한지의 관점에서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지각의 차원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자는 Asch(1946)이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특정 특질들(e.g. 단호한, 현실적인, 부지런한, 지적인)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따뜻함(warm)과 차가움(cold)이 중심 특질(central trait)로 작동함을 밝혔다. Rosenberg 와 그의 동료들(1968)은 Asch(1946)의 연구를 기초로 사회 지각의 차원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친구나 친척, 유명 인사 등 특정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떠올리게 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형용사들을 주어진 형용사 목록에서 선택하여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60 개의 형용사들이 좋은-나쁜(good-bad), 강한-부드러운(hard-soft), 그리고 능동적인-수동적인(active-passive)의 3 차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확인 되었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특질 형용사들이 사회적으로

좋은-나쁜(social good-bad)차원; 따뜻함 차원과 지적으로 좋은-나쁜(intellectual good-bad)차원; 유능함 차원의 2 개의 차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좋은-나쁜 차원에서는 진실된(sincere), 허영심이 강한(vain) 등이 극명하게 분류되었고, 지적으로 좋은-나쁜 차원에서는 과학적인(scientific), 어리석은(foolish) 등이 각각 양 극단과 가깝게 분류되었다. 즉, 타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 형성은 따뜻함 차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좋은-나쁜 차원과 유능함 차원에 해당하는 지적 좋은-나쁜 차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도덕성(morality)과 유능함(competence)의 차원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상 형성을 한다는 사실도 나타났다(Wojciszke, Bazinska, & Jaworski, 1998; Wojciszke, 2005; Wojciszke, 1994). Wojciszke 와 그의 동료들(1998)은 연구를 통해 도덕성 특질로는 따뜻함 차원과 같은 정직한(honest), 관대한(generous), 인내심이 있는(tolerant) 등의 형용사들을 포함시켰으며, 유능함 특질로는 유능한(competent), 창의적인(creative), 능률적인(efficient) 등의 형용사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Peeters(2002)는 특질을 타인-유익성(other-profitability)으로 분류되는 호감과 관련된(likability-related) 특질과 자기-유익성(self-

profitability)으로 분류되는 권력과 관련된(power-related) 특질의 두 차원으로 분류했다. 그는 똑똑한(intelligent), 비능률적인(inefficient) 등의 특질들을 자신과 관련된 자기-유익(self-profitable) 차원에 포함시켰고,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비우호적인(hostile) 등의 특질들을 타인과 관련된 타인-유익(other-profitable) 차원에 포함시켰다. 이 두 차원 또한 타인-유익 차원은 따뜻함 차원으로 자기-유익 차원은 유능함의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우세성-복종성(dominance-submissiveness) 차원과 우호성-적대성(friendliness-hostility) 차원에서 대인 관계 측면의 성격들이 분류된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했다(Freedman, et al., 1951; Judd, et al., 2005; Wiggins, 1979).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용어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사회 지각의 대표적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Judd et al., 2005). 즉, 따뜻함과 유능함은 사회 지각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보편적 차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Fiske, Cuddy, & Glick, 2007).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없었다.

한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 지각은 대상에 대한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은 따뜻함과 유능함이 모두 높게 지각되는 회사에게는 존경의 정서를 느끼고,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아졌으며(Aaker, Vohs, & Mogilner, 2010), 정치인에게서 지각된 유능함은 선거의 승리와 관계되었으나, 지각된 사교성(sociability)은 반대로 선거의 패배와 관계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Castelli, Carraro, Ghitti, & Pastore, 2009). 그러나 지각자인 당사자의 정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지각자인 자녀가 대상인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 것이 지각자인 자녀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행복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지각과 자녀의 행복간의 관계는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자녀 양육 방식(parenting style)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parenting style)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수용성(acceptance)과 통제성(control)의 두 가지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다(Baumrind, 1967; Becker, 1964; Maccoby & Martin, 1983; Schaefer, 1959; Symons, 1939). 예를 들면, Symons(1939)가 자녀 양육 방식을 수용성/거부성(acceptance/rejection)의 차원에서 분류 및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Balwin(1955)은 정서적 따뜻함/적대성(emotional warmth/hostility) 차원과 독립성/개입성(detachment/involvement)차원을 제시한 바 있다. Schaefer(1959)도 자녀 양육 방식을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Schaefer(1959)는 연령이 한 달에서부터 세 살까지인 아기들과 아기들의 어머니 56 쌍을 3 명의 관찰자로 하여금 관찰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관찰자들은 32 가지 행동 변수들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아기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 정서적 활동들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기에게 행하는 애정 표현하기(expression of affection), 무시하기(ignoring), 건강에 대해 염려하기(concerning about health) 등의 행동들이 관찰되어 보고된 것이다. 관찰된 행동들을 종합해 본 결과, 연구자는 아기에게 행하는 어머니의 행동들이 사랑/적대(love/hostility)와

자율성/통제성(autonomy/control)의 두 차원으로 분류 및 해석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를 테면, 사랑/적대성의 차원에서는 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positive evaluation of child), 애정 표현하기(expression of affection) 등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에서부터 자녀를 부담으로 지각하기(perceiving child as burden), 벌 주기(punishment) 등의 적대성을 나타내는 행동까지 분류되었다. 또한, 자율성/통제성의 차원에서는 아기에 대해 자율성을 주기(autonomy)의 행동부터 과도한 접촉(excessive contact)의 행동까지로 분류 되었다. 이후, Becker(1964)가 따뜻함/적대성(warmth/hostility)과 엄격성/허용성(restrictiveness/permisiveness)의 두 차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들은 용어를 상이하게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Baumrind(1967; 1971)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자녀 양육 방식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녀는 관찰자들을 통해 아동과 부모들을 유치원과 가정에서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 변인들과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용성/반응성 차원과 요구성/통제성 차원 두 차원에 따라 부모의 양육 방식을 권위 있는(authoritative),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그리고 허용적인(permissive) 양육 방식의 3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자녀들에게 통제적이고 요구적이지만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자세도 취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 통제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덜 따뜻한 양육 방식은 권위주의적인 양육 방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따뜻하지만 비통제적이고 비요구적인 양육 방식은 허용적인 양육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발달적 특성과 자녀 양육 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들은 자기 신뢰적(self-reliant)이고, 자기 통제적(self-controlled)이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받는 자녀들은 불만족하고, 고립되어 보이고,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허용적인 방식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며 종종 충동적이었다. 이후, Maccoby와 Martin(1983)은 수용성(responsiveness)과 요구성(demandingness)의 차원을 제시하며, Baumrind(1967; 1971)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수용성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애착의 크기를 의미하는 반면에, 요구성 차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규칙 혹은 감독의 양을 나타낸다. Maccoby 와 Martin(1983)은 이 두 차원에서 Baumrind(1967; 1971)가 제시한 3 가지 양육 방식을 해석하고, 그 외에 수용성과 요구성이 모두 낮은 무관심한(neglecting) 자녀 양육 방식을 추가하여 4 가지 양육 방식이 있음을 밝혔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를 권위 있는 부모로 지각하는 것이 더 많은 삶 만족감, 자존감, 심리사회적 유능감, 자율성 등의 행복과 관련되는 여러 긍정적 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이 나타났다(Aunola, Stattin, & Nurmi, 2000; Lamborn, et al., 1991; Milevsky, et al., 2007; Karavasilis, Doyle, & Markiewicz, 2003; Gonzalez, Holbein, & Quilter, 2002; Steinberg, et al., 1994). 한편, 자녀 양육을 수용성과 거부성의 차원으로 나누고 자녀 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부모의 수용성과 거부성 이론(PARTheory: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Theory)도 연구되어 오기도 했다(Rohner, 1986). 이 이론에서는 따뜻하고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그에 따라 자녀들은 사랑 받는 정서를 느끼며 반면, 거부하는 부모는 자녀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자녀들은 사랑 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자녀 양육 방식을 수용성과 통제성의 차원으로써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에게 수용성과 통제성을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과 자녀의 행복과 관련된 긍정적 발달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 온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두 가지 사항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 째는 사회 지각의 따뜻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따뜻하게 지각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고, 둘 째는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부모를 지각하고 자녀의 행복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사회 지각의 두 차원인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수용성과 통제성의 차원을 고려해 보면, 수용성과 통제성의 차원은 따뜻함의 차원으로 분류 및 해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용성의 차원은 Rohner(1986)가 그의 책에서 수용성/거부성의 차원을 따뜻함 차원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Daring 과 Steinberg(1993) 또한 자녀 양육 방식의 통합 모델(integrative model)을 제시하면서 수용성과 따뜻함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통제성 차원은 자녀에게 내리는

규칙 혹은 감독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지각된 능력과 관련된 유능함보다는 지각된 의도와 관련된 따뜻함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은 유능함의 차원을 배제하고 따뜻함의 차원에 국한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가 부모에 대해 사회 지각을 하게 하고, 그러한 사회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및 질문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따뜻함과 유능함이 사회 지각의 대표적이고 근본적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것이 자녀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자녀가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지각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 중에서 어떤 차원이 자녀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자녀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비교하여, 부모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가 평가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넷째,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지각이 행복과

갖는 관련성이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 연령층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2에서는 중학생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는 자녀의 관점 모형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관점 모형이다(그림 1 참조). 첫째, 자녀의 관점 모형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주 관심사이다. 둘째, 부모의 관점 모형에서는 부모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주 관심사이다. 전자의 모형은 자녀의 실제 행복에 관한 모형이고, 후자의 모형은 부모가 예측하는 자녀의 행복에 관한 모형이다. 각 모형은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모녀 관계로 4 가지로 세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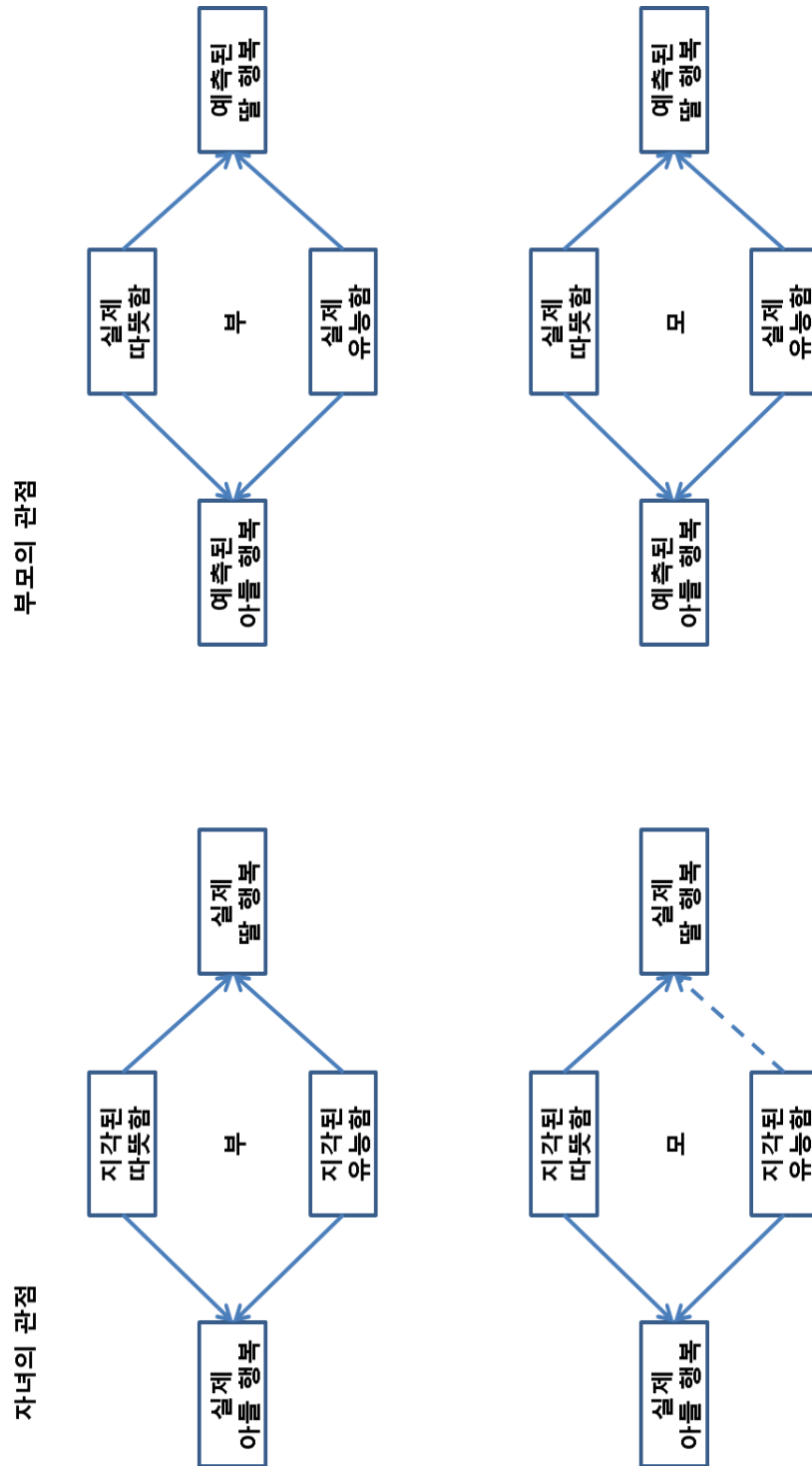


그림 1. 자녀의 관점 모형과 부모의 관점 모형(대학생 가족)

연구 1

방법

참가자

참가자 가족은 서울대학교와 건양대학교 및 기타 대학교에 게시한 연구 모집 광고를 통해 모집했다. 연구 참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참가자 가족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90가족(서울대학교: 36가족, 건양대학교: 40가족, 기타: 14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 자격 조건은 2가지였다. 첫째, 가족은 부, 모, 자, 녀가 모두 가족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4인 가족으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편 부모 가정 및 부, 모와 1명의 아들로 구성되거나 부, 모와 1명의 딸로 구성된 3인 가족 혹은 부, 모와 아들 2명으로 구성되거나 부, 모와 딸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연구 참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배제함과 동시에 부모, 자녀의 성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자녀의 연령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로 구성되거나, 혹은 대학생 자녀와 초등학교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연구 참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대학생과 연령 차가 많이 나는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자녀는 부모를 지각하는 데 있어 연령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참가자 가족들은 연구 사례비로 가족당 4만원을 받았다. 참가자 가족의 연령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참가자 연령 특성

참가자 연령 특성	부	모	자	녀
N	90	90	90	90
평균	52.52	49.60	21.77	22.21
표준편차	4.46	3.96	2.61	3.70
범위	44-75	42-65	17-31	16-34

절차 및 도구

설문지 배분 및 수거

가족 연구의 특성상, 가족이 모두 연구실에 와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연구자가 각 가정을 모두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우편을 통한 설문지 배분 및 수집을 원칙으로 하였다.¹ 설문지는 한 가족 당,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각각 작성할 서로 다른 4개의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우편 봉투에 동봉하여 배분 및 수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설문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각 가족 구성원 별로 일일이 문자를 통해 설문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주의 사항으로는 반드시 구성원 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설문지를 작성할 것과, 설문지에 만들어 놓은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할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¹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연구실에서 가족의 설문지를 수령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도 직접 연구실로 제출하였다.

측정 도구

따뜻함과 유능함

따뜻함과 유능함의 측정은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특질 형용사들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uddy와 그의 동료들(2008; 2007)이 사용했던 형용사들 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합한 형용사들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뜻함은 따뜻한(warm), 너그러운(generous), 상냥한(good-natured), 친절한(friendly), 가정적인(family-man)의 5개의 형용사로 측정하였고, 유능함은 유능한(competent), 경쟁심이 강한(competitive), 똑똑한(intelligent), 능력 있는(capable), 성공적인(successful)의 5개의 형용사로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에 의해 질문에 답하였다. 분석에서는 따뜻함 5문항과 유능함 5문항의 각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부모에게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 그림 2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성 개념	문항
따뜻함	귀하의 아버지/어머니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따뜻한, 너그러운, 상냥한, 친절함, 가정적인]
유능함	귀하의 아버지/어머니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경쟁심이 강한, 똑똑한, 능력 있는, 성공적인]

그림 2. 자녀 질문지

구성 개념	문항
따뜻함	귀하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따뜻한, 너그러운, 상냥한, 친절함, 가정적인]
유능함	귀하는 얼마나 _ _ _ 한 사람입니까? [유능한, 경쟁심이 강한, 똑똑한, 능력 있는, 성공적인]

그림 3. 부모 질문지

행복

자녀의 행복은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Lyubomirsky & Lepper, 1999)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에게는 “귀하의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귀하의 딸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하여 7점 척도(1점; 전혀 행복하지 않다, 7점; 매우 행복하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을 비교할 때에는 부모와 동일한 1개의 문항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 측정 문항 중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매우 _ _ _ 라고 생각한다.” 문항(1점;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7점; 행복한 사람이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는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자녀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자녀의 관점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 점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 변량 분석(mixed ANOVA)을 시행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이 피험자 내 변인(within-subject variables)이 되었고, 자녀의 성별이 피험자 간 요인(between-subject factor)이 되었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와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나누어 각 1 번씩 총 2 번

시행하였다. 그 결과(표 3 참조), 우선 부모에게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_{\text{아버지}}(1, 151) = 6.249, p = .013$, $F_{\text{어머니}}(1, 150) = 25.377, p < .001$). 즉,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따뜻함($M_{\text{아들}} = 5.11, M_{\text{딸}} = 5.16$)보다 유능함($M_{\text{아들}} = 5.44, M_{\text{딸}} = 5.25$)을 더 많이 지각한 반면, 어머니에게는 유능함($M_{\text{아들}} = 5.44, M_{\text{딸}} = 5.27$)보다 따뜻함($M_{\text{아들}} = 5.80, M_{\text{딸}} = 5.59$)을 더 많이 지각했다.

성별에 따른 주 효과($F_{\text{아버지}}(1, 151) = .194, p = .661, F_{\text{어머니}}(1, 150) = .064, p = .801$) 및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_{\text{아버지}}(1, 151) = 1.895, p = .171, F_{\text{어머니}}(1, 150) = .022, p = .801$)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아버지에게는 따뜻함보다 유능함을, 어머니에게는 유능함보다 따뜻함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자녀(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따뜻함	유능함	<i>p</i>	따뜻함	유능함	<i>p</i>
아들	5.11(1.19)	< 5.44(1.07)	.002	5.80(.89)	> 5.44(.93)	.001
딸	5.16(1.21)	< 5.25(1.12)	.478	5.59(.96)	> 5.27(.90)	.001
평균	5.14(1.19)	< 5.35(1.09)	.014	5.70(.93)	> 5.36(.92)	.000
값	9)	9)		3)	2)	
	√	√	.179(.000)	√	√	.001(.000)
아버지	5.01(.84)	> 4.74(.99)	.005	-	-	
지))				
어머니	-	-		5.41(.85)	> 4.78(.76)	.000
니				5)	6)	

Notes. 부등호는 평균 값 크기 비교를 의미하며 괄호, *p* 값은 차이 검증의 유의 수준을 의미한다.

부모의 관점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점수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의 관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성별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두고 혼합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51) = 44.126, p < .001$). 즉, 부모들은 유능함($M_{\text{아버지}} = 4.74, M_{\text{어머니}} = 4.78$)보다는 따뜻함($M_{\text{아버지}} = 5.01, M_{\text{어머니}} = 5.41$)에 대해 스스로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F(1, 151) = 4.043, p = .061$). 또한, 평가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났다($F(1, 151) = 7.174, p = .008$). 즉, 아버지 스스로가 유능함에 비해 따뜻함을 높게 평가하는 정도보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유능함보다 따뜻함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컸다. 이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에 비해 더 강하게 스스로를 유능한 사람이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을 정리 및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어머니를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기보다는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점수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부모에 대해 따뜻함과 유능함을 더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².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상관 관계

다음으로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과 자녀 행복 간의 상관 분석 및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녀의 관점에서는

²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자녀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p = .179$), 자녀들이 아버지 스스로의 평가보다 더 강하게 아버지의 따뜻함을 지각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가 자기 보고한 실제 행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녀의 관점

먼저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와 자녀의 실제 행복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표 5 참조).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과 자녀의 실제 행복 간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r = .639$, $p < .001$)과 유능함($r = .529$, $p < .001$)은 모두 아들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모자 관계에서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r = .396$, $p < .001$)과 유능함($r = .525$, $p < .001$)이 모두 아들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녀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도 딸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r = .390$, $p < .001$)과 유능함($r = .362$, $p < .001$), 그리고 딸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r = .356, p < .001$)과 유능함($r = .387, p < .001$) 모두 딸의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따뜻하고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표 4. 아들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들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639**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529**	.678**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96**	.557**	.433**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525**	.729**	.558**	.534**

** $p < .001$, * $p < .05$.

표 5. 딸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딸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390**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362**	.484**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56**	.396**	.558**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387**	.593**	.481**	.645**

** $p < .001$, * $p < .05$.

부모의 관점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과 부모가 예측하는 자녀의 행복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표 6, 표 7 참조). 그 결과, 변수들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가 예측한 아들과 딸의 행복과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r_{\text{아들}} = .257, p < .001, r_{\text{딸}} = .349, p < .001$)과 유능함($r_{\text{아들}} = .396, p < .001, r_{\text{딸}} = .513, p < .001$)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과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r_{\text{아들}} = .476, p < .001, r_{\text{딸}} = .530, p < .001$)과 유능함($r_{\text{아들}} = .325, p < .001, r_{\text{딸}} = .273, p < .05$)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부모들은 스스로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표 6.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631**		
3 아버지의 따뜻함	.257*	.349**	
4 아버지의 유능함	.396**	.513**	.603**

** $p < .001$, * $p < .05$.

표 7.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746**		
3 어머니의 따뜻함	.476**	.530**	
4 어머니의 유능함	.325**	.273*	.399**

** $p < .001$, * $p < .05$.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자녀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부모의 관점에서는 부모가 스스로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두 차원 중 어느 차원이 자녀의 행복에 더 중요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을 동시에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이 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로 구분하여 총 4번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8, 표 9 참조). 예를 들면, 부자 관계에서는 예측 변인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두고, 종속 변인을 아들의 행복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B_{\text{아들}} = .683, p < .001, B_{\text{딸}} = .420, p = .001$)은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아버지에게 지각한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즉,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아버지를 유능하게 지각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유능함($B_{\text{아들}} = .432$, $p = .001$, $B_{\text{딸}} = .318$, $p < .05$)은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은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즉, 자녀들은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추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1 참조). 즉,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정리해 보면, 부모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의 행복에 있어서 아버지에게는 지각된 유능함보다는 지각된 따뜻함이 더 중요하며, 어머니에게는 지각된 따뜻함보다 지각된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8.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683**	.566**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012	-.101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420*	.371*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177	.169

** $p < .001$, * $p < .05$, † $p < .1$.

표 9.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67	.199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432*	.473*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85	.221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318*	.400*

** $p < .001$, * $p < .05$, † $p < .1$.

표 10. 자녀의 행복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115	.133
	자기 보고한 유능함	-.181	-.182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59	.074
	자기 보고한 유능함	.167	.174

** $p < .001$, * $p < .05$, † $p < .1$.

표 11. 자녀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095	-.118
	자기 보고한 유능함	.019	.024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59	.079
	자기 보고한 유능함	.026	.037

** $p < .001$, * $p < .05$, † $p < .1$.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자녀의 관점에서 종속 변인을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첫 번째 문항으로 두고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비교하였다.

자녀의 관점

이전 회귀 분석과 동일하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로 구분하여 총 4번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2, 표 13 참조). 예를 들면, 부자 관계에서는 예측 변인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두고, 종속 변인을 아들의 행복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자 관계와 부녀 관계 모두에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지각한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버지에게 지각한 따뜻함($B_{\alpha_{\text{아들}}} = .538, p < .001, B_{\text{딸}} = .281, p < .05$)은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딸이 아버지에게 지각한 유능함($B = .226, p = .063$) 또한 딸의 행복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다. 모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지각한 따뜻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어머니에게 지각한 유능함($B = .438, p < .001$)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모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B = .269$, $p = .058$)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즉,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분석했을 때와 동일하게,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538**	.521**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164	.178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281*	.278*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226†	.242†

** $p < .001$, * $p < .05$, † $p < .1$.

표 13.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구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62	.211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438**	.546**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82	.228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269†	.359†

** $p < .001$, * $p < .05$, † $p < .1$.

부모의 관점

부모의 관점 또한 자녀의 관점과 동일하게,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로 구분하여 총 4 번의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4, 표 15 참조). 예를 들어, 부자 관계에서는 예측 변인을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두고, 종속 변인을 아버지가 예측한 아들의 행복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자 관계와 부녀 관계 모두에서 아버지가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B_{\text{아들}} = .378, p < .001, B_{\text{딸}} = .478, p < .05$)은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반면, 모자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는 부자 및 부녀관계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B_{\text{아들}} = .396, p < .001, B_{\text{딸}} = .504, p < .001$)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즉, 아버지는 본인을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행복 예측에 있어서 본인의 유능함이 따뜻함에 비해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행복 예측에 있어서 본인의 따뜻함이 유능함에 비해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14. 아들 행복에 대한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아들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28	.030
	자기 보고한 유능함	.378**	.335**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396**	.510**
	자기 보고한 유능함	.167	.238

** $p < .001$, * $p < .05$.

표 15. 딸 행복에 대한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딸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64	.072
	자기 보고한 유능함	.475**	.460**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504**	.666**
	자기 보고한 유능함	.071	.103

** $p < .001$, * $p < .05$.

논의

연구 1의 결과는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그러한 사회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의 관점을 추가하여 부모가 스스로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그러한 지각이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임으로써 자녀와 부모간 자녀 행복에 대한 견해 차를 밝혔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는 따뜻함에 비해 유능함을, 어머니에게는 유능함에 비해 따뜻함을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따뜻하기보다는 유능한 사람, 어머니는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모들은 모두 스스로를 유능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종합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우선 부모의 관점을 살펴 보면, 자녀 행복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아버지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인의 따뜻함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행복 예측과 관련이 없었다. 반면,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인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행복 예측과 관련이 없었다. 이는 기존의 성 역할 고정 관념(sex role stereotype)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잘 부합하는 결과이다. 사회 역할 이론(social role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자는 집안의 기둥으로서 높은 지위의 역할을 가지며, 여자는 가정 주부로서 낮은 지위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Eagly, 1987). 또한, 대다수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공감적 특성(communal characteristic) 혹은 도구적 특성(agentive characteristic)에 속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공감적 특성은 주로 타인의 복지(welfare)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애정적이고, 도움을 주며, 친절하고, 다정하며, 대인관계적으로 예민한 것 등과 관련된다. 반면, 남성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적 특성은 주로 단언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경향성으로 공격적이고, 야망적이며,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띤다(Bakan, 1966; Eagly & Karau, 2002). 즉, 사회 역할 이론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의 구분, 그리고 공감적 특성과 도구적 특성의 구분은 사회

지각에서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 구분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자녀의 관점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연구 1 이 잘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는 부모가 예측한 것과 정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실제 행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또한, 아버지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자녀들은 아버지를 따뜻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또한,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자녀들은 어머니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자녀의 행복에 대한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의 효과와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의 효과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종합 논의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러나 연구 1 은 자녀들이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부모를 지각하고 그러한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고, 또한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불일치하고 있음을 밝힌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더 어린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족에게서도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학생들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나이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급변하는 시기이다(Paikoff & Brooks-Gunn, 1991). 따라서, 중학생 가족과 대학생 가족 간에는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2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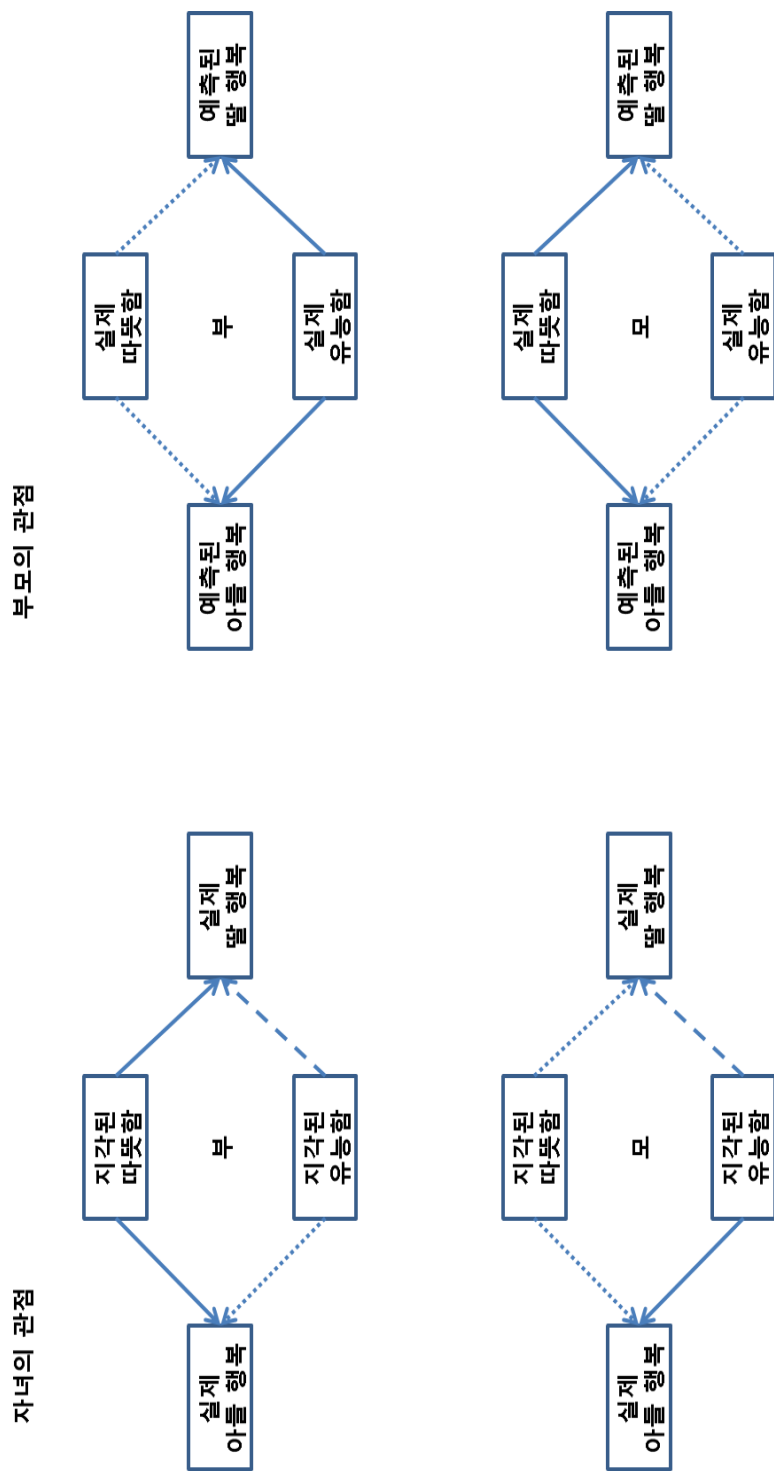


그림 4.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Notes. 점선: $p < .05$, 파선: $p < .1$, 점선: ns

연구 2

방법

참가자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가 모집 광고를 통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총 53가족(금호중: 13가족, 월곡중: 40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때 자녀의 연령은 연구 1의 가족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 중학생 이하로 제한하였다. 연구 사례비는 가족당 2만원을 받았다. 참가자의 연령 특성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 참가자 연령 특성

참가자 연령 특성	부	모	자	녀
N	53	53	53	53
평균	44.58	41.10	13.71	13.98
표준편차	3.63	3.41	1.71	1.59
범위	36-54	35-53	10-16	9-16

절차 및 도구

설문지 배분 및 수거

중학생 가족들은 자녀 연령의 특성 상, 연구에 참여한 모든 가족이 학교 주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주거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중학교에 근무하는 담임 선생님을 통해 일괄적으로 설문지를 배분하고 수거하였다. 연구자는 담임 선생님에게 가족 별로 설문지가 동봉되어 있는 봉투를 우선 보내고, 담임 선생님이 그 봉투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동봉되어 학생을 통해 담임 선생님에게 수거되었고 제출된 설문지는 다시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수거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지 작성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게 하였고, 연구자 또한 부모에게 문자를 통해 설문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측정 도구

따뜻함과 유능함의 측정 및 행복의 측정은 연구 1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결과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정도

자녀의 관점

연구 1 에서와 동일하게,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 점수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된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7 참조). 피험자 내 변인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하는 특성(따뜻함 대 유능함)을 두고, 피험자 간 요인으로 자녀의 성별을 두고 분석하였다(표 3 참조).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나누어 각 1 번씩 총 2 번 시행하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났다($F(1, 98) = 2.989, p = .085$). 즉,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유능함($M_{\text{아들}} = 5.00, M_{\text{딸}} = 5.16$)보다 따뜻함($M_{\text{아들}} = 5.18, M_{\text{딸}} = 5.32$)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별의 주 효과($F(1, 98) = .436, p = .510$)와 지각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 98) = .016, p = .900$).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유능함($M_{\text{아들}} = 5.00,$

$M_{\text{딸}}=5.17$)보다 따뜻함($M_{\text{아들}}=5.58$, $M_{\text{딸}}=5.72$)을 더 지각하는 주
 효과($F(1, 98)= 40.360$, $p< .001$)가 나타났다. 반면, 성별의 주
 효과($F(1, 98)= .472$, $p= .494$)와 지각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1, 98)= .007$, $p= .935$)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 가족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모두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7. 자녀(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어머니			
	따뜻함		유능함	<i>p</i>	따뜻함		유능함	<i>p</i>
아들	5.18	>	5.00	.175	5.58	>	5.00	.000
	(1.35)		(1.11)		(1.19)		(1.10)	
딸	5.32	>	5.16	.283	5.72	>	5.17	.000
	(1.27)		(.97)		(1.22)		(1.05)	
평균	5.25	>	5.08	.085	5.65	>	5.08	.000
값	(1.31)		(1.04)		(1.20)		(1.07)	
	√		√	.045(.00	√		√	.000(.00
				0)				0)
아버지	5.00(.8	>	4.47(.9	.002	-		-	
지	2)		3)					
어머니	-		-		4.99(1.0	>	4.20(.8	.000
니					4)		2)	

Notes. 부등호는 평균 값 크기 비교를 의미하며, *p* 값은 차이 검증의 유의 수준을 의미한다.

부모의 관점

부모 또한, 부모가 스스로 지각하는 차원(따뜻함 대 유능함)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두고, 부모의 성별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두고 혼합된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지각하는 차원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 98) = 42.175$, $p < .001$). 즉, 부모는 스스로에 대해 유능함($M_{\text{아버지}} = 4.47$, $M_{\text{어머니}} = 4.20$)보다 따뜻함($M_{\text{아버지}} = 5.00$, $M_{\text{어머니}} = 4.99$)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성별의 주 효과($F(1, 98) = 1.095$, $p = .324$) 및 지각하는 차원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1, 98) = 1.891$, $p = .172$)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관점과 비교해 보면, 중학생 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며, 부모 또한 스스로에 대해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에 대해 더 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 자녀 모두 부모의 유능함보다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보다 더 강하게 부모에게 따뜻함과 유능함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

다음으로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과 자녀 행복 간 상관 분석 및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회귀 분석을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자녀의 관점

먼저 상관분석 결과, 아들과 부모의 변수들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표 18, 표 19 참조). 부자 관계에서는 아들의 행복은 아들에게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의 관계($r = .647, p < .001$)와 아들에게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의 관계($r = .580, p < .001$) 모두에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자 관계에서도 아들의 행복과 아들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r = .541, p < .001$)과 아들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r = .474, p < .001$) 모두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딸의 경우에는 딸의 행복과 딸에게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r = .532, p < .001$) 및 딸에게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r = .353, p < .05$)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표 18. 아들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들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647**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580**	.747**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474**	.667**	.684**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541**	.708**	.751**	.713**

** $p < .001$, * $p < .05$.

표 19. 딸이 지각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딸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4
1 행복				
2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239			
3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532**	.646**		
4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53*	.585**	.542**	
5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248	.712**	.731**	.704**

** $p < .001$, * $p < .05$.

부모의 관점

다음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 유능함과 부모가 예측하는 자녀의 행복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표 20, 표 21 참조). 먼저 어머니의 경우, 변수들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r_{\text{아들}} = .492, p < .001, r_{\text{딸}} = .513, p < .001$)하고 유능($r_{\text{아들}} = .443, p < .001, r_{\text{딸}} = .390, p < .001$)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경우, 본인의 유능함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행복 예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반면,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r_{\text{아들}} = .401, p < .001, r_{\text{딸}} = .358, p < .001$).

표 20.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아버지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829**		
3 아버지의 따뜻함	.401**	.358**	
4 아버지의 유능함	.235	.245	.154

** $p < .001$, * $p < .05$.

표 21.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 및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 행복 간
상관 계수

	1	2	3
1 예측된 아들의 행복			
2 예측된 딸의 행복	.830**		
3 어머니의 따뜻함	.492**	.513**	
4 어머니의 유능함	.443**	.390**	.518**

** $p < .001$, * $p < .05$.

부모의 따뜻함 및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이러한 상관 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표 22, 표 23). 먼저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 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B = .320$, $p = .063$)과 유능함($B = .368$, $p = .033$)은 모두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반면, 부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B = .614$, $p < .001$)은 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모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B = .556$, $p = .002$)은 아들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모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B = .334$, $p = .081$)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행복을 예측했다. 즉, 부자 관계에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이 아들의 행복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한 것을 제외하면, 아들과 딸이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아들, 딸의 행복에 대한 효과가 정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을 예측 변인으로 두고 자녀의 행복을 종속 변인으로 두고 추가 분석을 해 본 결과(표 24, 표 25 참조), 부녀 관계에서의 아버지의 유능함($B = .285, p = .044$)과 모자 관계에서 어머니의 유능함($B = .299, p = .077$)이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딸과 아들의 행복을 예측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부모의 자기 평가와 자녀의 행복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행복에는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보다는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에게 지각하는 따뜻함과 유능함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대학생 가족에서는 아들과 딸이 같은 양상을 보였음에 반해, 중학생 가족에서는 아들과 딸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하였다.

표 22.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320*	.282*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368*	.397*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096	-.104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614**	.883**

** $p < .001$, * $p < .05$, † $p < .1$.

표 23.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054	.053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556*	.593*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34†	.387†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070	.094

** $p < .001$, * $p < .05$, † $p < .1$.

표 24. 자녀의 행복에 대한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149	.216
	자기 보고한 유능함	.084	.108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227	-.391
	자기 보고한 유능함	.285*	.432*

** $p < .001$, * $p < .05$, † $p < .1$.

표 25. 자녀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가 자기 보고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주관적 행복감 척도 평균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자기 보고한 따뜻함	-.140	-.160
	자기 보고한 유능함	.299	.439
녀	자기 보고한 따뜻함	.062	.083
	자기 보고한 유능함	.126	.213

** $p < .001$, * $p < .05$, † $p < .1$.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녀의 관점에서 종속 변인을 1개 문항으로 측정한 행복으로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6, 표 27, 표 28, 표 29 참조).

자녀의 관점

부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B = .484$, $p = .005$)은 아들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부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유능함($B = .627$, $p < .001$)은 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모자 관계에서는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은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B = .478$, $p = .008$)은 아들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모녀 관계에서는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유능함은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B = .353$, $p = .069$)은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딸의 행복을 예측하였다. 즉, 종속 변인을 주관적 행복감 척도의 평균값으로 두고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표 26.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구분	예측 변인	종속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484**	.527**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219	.290
녀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	-.147	-.178
	지각된 아버지의 유능함	.627**	1.000**

** $p < .001$, * $p < .05$, † $p < .1$.

표 27. 자녀의 행복에 대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실제 자녀 행복(1 문항)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자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133	.164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478**	.639**
녀	지각된 어머니의 따뜻함	.353†	.457†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	-.001	-.001

** $p < .001$, * $p < .05$, † $p < .1$.

부모의 관점

전반적으로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지만,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경우,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자신이 예측한 아들, 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자신이 예측한 아들, 딸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B_{\text{아들}} = .374, p = .007, B_{\text{딸}} = .328, p = .019$).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어머니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어머니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_{\text{아들}} = .359, B_{\text{딸}} = .426$). 다만,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이 아들의 행복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하였다($B = .257, p = .081$).

표 28. 아들의 행복에 대한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아들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374*	.524*
	자기 보고한 유능함	.178	.217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359*	.563*
	자기 보고한 유능함	.257†	.329†

** $p < .001$, * $p < .05$, † $p < .1$.

표 29. 딸의 행복에 대한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회귀계수

		종속 변인	
구분	예측 변인	예측된 딸 행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2
부	자기 보고한 따뜻함	.328*	.463*
	자기 보고한 유능함	.195	.239
모	자기 보고한 따뜻함	.426*	.481*
	자기 보고한 유능함	.169	.243

** $p < .001$, * $p < .05$, † $p < .1$.

논의

연구 2 는 대학생 가족이 아닌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더 강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도 스스로를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 아들의 경우 부모를 모두 따뜻하고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을 보였으며, 딸의 경우 아버지를 유능하게,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경향을 보였다. 즉, 딸 행복의 경우 아들 행복의 경우와 달리,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과 지각된 어머니의 유능함이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음에 반해, 아버지는 본인의 유능함은 자녀의 행복과 관계 없고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회귀 분석 결과는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종합하여 그림 5 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관점을 살펴 보면, 부모가 자기 보고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은 자녀의 실제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다³.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했고, 부모가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⁴. 즉, 부모들은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 반해, 본인을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 예측과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는 연구 1 논의 부분에서 설명한 사회 역할 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자녀의 나이에 따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연구 2에 참가한 자녀들은 10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청소년들이다. 이 연령의 어린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많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Paikoff & Brooks-Gunn, 1991).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사춘기 시기에는 자녀가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도 멀어지며, 선택에 있어 부모에게 양보하는 것도 줄어드는 시기이다. 또한, 자녀에게 있어

³ 부녀 관계에서는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5$)에서 아버지가 자기 보고한 유능함이 딸의 실제 행복을 예측하기는 하였다.

⁴ 어머니가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이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1$)에서 아들의 행복을 예측하기는 하였다.

가족의 기능도 가장 불만족스러워지며, 부모와의 갈등도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Montemayor & Hanson, 1985; 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an, & Wilson, 1983; Steinberg, 1987; Youniss & Smollar, 1985).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들 둔 아버지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며, 실제로 그러한 따뜻함이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상관 분석 결과에서도 아버지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과 예측한 자녀의 행복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한편, 자녀의 실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를 살펴 보면, 부자 관계와 모녀 관계에서는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녀 관계와 모자 관계에서는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예측한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따뜻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모녀 관계에서도 어머니가 예측한대로 딸은 어머니를 따뜻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반면, 부녀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자신이 따뜻할수록 딸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딸은 아버지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또한 모자 관계에서도 어머니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사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성간 조합인 부자 관계 및 모녀 관계에서 행복에 대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성간 조합인 부녀 관계 및 모자 관계에서 행복에 대한 불일치하는 경향성이 발견된 것은 Belenky 와 그의 동료들 1986)의 연구 결과와 일정 부분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자들은 자녀들이 타인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knowing)을 연결된 알기(connected knowing)와 분리된 알기(separate knowing)로 구분하였다. 연결된 알기는 모녀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자기(self)와 대상(object) 간의 친밀감(intimacy)와 동일감(equality)이 요구되는 반면, 분리된 알기는 부녀 관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거리감(distance)과 이질감(impersonality)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은 동성인 아버지에게, 딸은 동성인 어머니에게 친밀감과 동일감으로 인해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동일하게 행복감이 영향 받는 모습을 보이며, 부녀 혹은 모자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감과 이질감으로 인해 부모의 인식과 불일치하게 행복감이 영향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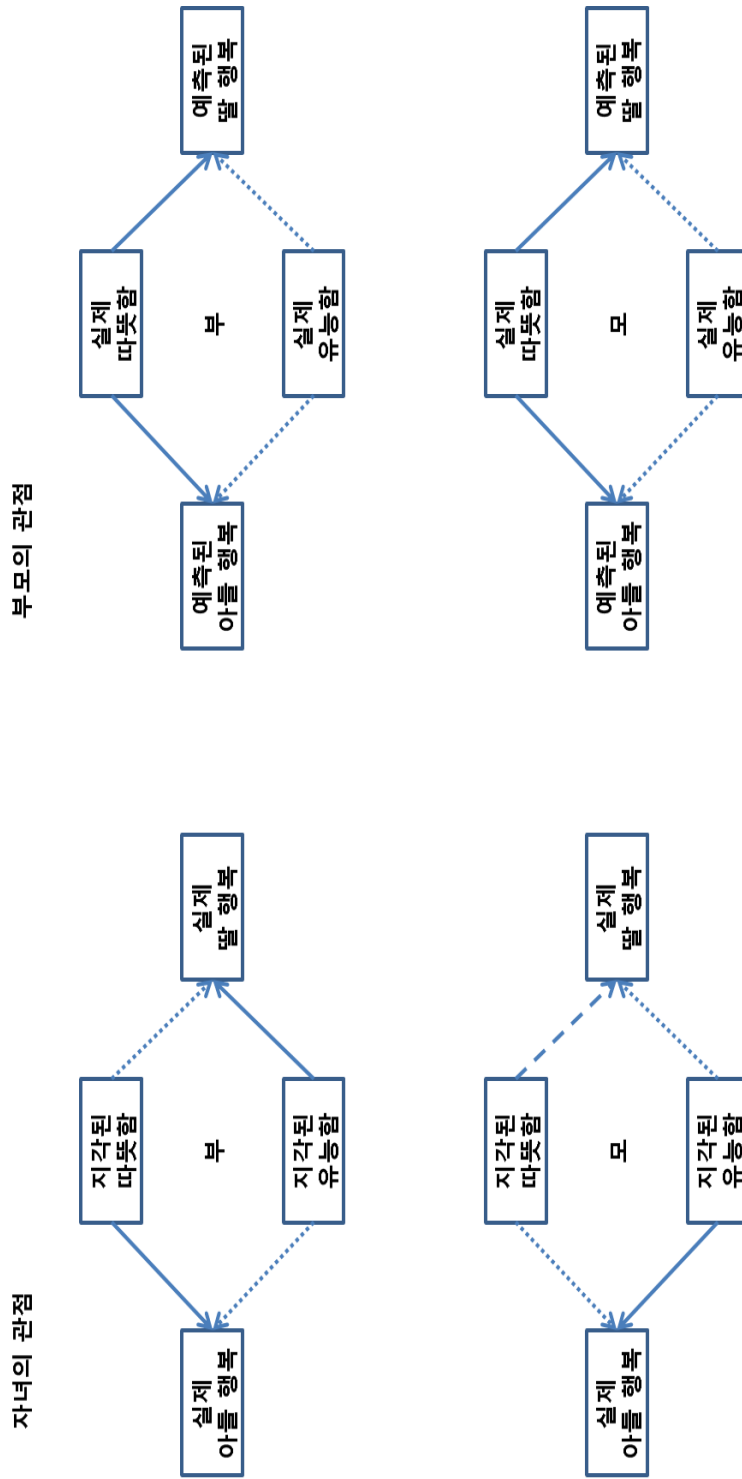


그림 5.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 비교
 Notes. 실선: $p < .05$, 파선: $p < .1$, 점선: ns

종합 논의

본 논문의 목적은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지각이 자녀의 행복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자녀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즉,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 부모에게 지각한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자녀의 관점)와 부모가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부모가 예측한 자녀의 행복에 대한 효과(부모의 관점)로 구분하여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된 2 개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에서는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90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부모들은 아버지의 경우, 본인을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어머니는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 반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녀는 아버지에게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어머니에게는 따뜻함보다는 유능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딸의 경우, 한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58$)에서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대상 가족의 연령층을 낮춰, 중학생 이하의 자녀로 구성된 53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 가족의 부모들은 본인을 따뜻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가 예측한 자녀들의 행복과 관계가 없었다. 한편,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아들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유능함보다는 따뜻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어머니에게는 따뜻함보다는 유능함을 강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따뜻하기보다는 유능하다고 지각할수록 행복했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유능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대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와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2의 결과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의 관점에서 어머니들은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모두에서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유능함은 부모들이 예측한 자녀들의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반면, 아버지들은 중학생 가족에서는 본인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반해, 대학생 가족에서는 본인이 유능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아버지들은 가족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 행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다. 이는 연구 1 과 연구 2 의 논의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더불어 사춘기 자녀의 연령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아버지는 유능함, 어머니는 따뜻함의 차원이 자녀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사춘기 연령의 자녀의 특성 상, 자신의 따뜻함이 유능함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사춘기 때 가장 높다가 18 세를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Montemayor, 1983). 따라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달리 자녀의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의 행복에 대한 신념이 변화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가능성도 있다. 부모의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자녀 행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대학생 가족의 부모 세대와 중학생 가족의 부모 세대 간에

세대 간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가족 부모의 나이와 중학생 가족 부모의 나이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t(124)_{\text{아버지}} = 10.838, p < .001, t(123)_{\text{어머니}} = 12.607, p < .001$). Bigner(1979)는 좋은 아버지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진보적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전통적 개념에서는 ‘아버지는 항상 옳고 강하다’, ‘자녀가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처럼 따뜻하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술된 반면, 진보적 개념에서는 ‘아동과 그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동과 자신의 개성을 인식한다’ 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기술된 바 있다. 따라서, 세대가 변화함에 따른 자녀 행복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녀들의 관점에서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을 비교해보면, 우선 아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즉, 아들은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모두에서 아버지에게는 따뜻함을 지각할수록 행복했으며, 어머니에게는 유능함을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반면, 딸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모두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부녀 관계에서 중학생 가족의 딸들은 아버지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하였지만, 대학생 가족의 딸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다음, 모녀 관계에서 중학생 가족의 딸들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지만, 대학생 가족의 딸들은 어머니를 유능하게 지각할수록 행복했다. 아들의 실제 행복에 대한 지각된 아버지의 따뜻함의 일관된 효과는 기존 선행 연구들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하는 남자 대학생들은 아버지와의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Komarovsky, 1976), 아버지의 개입(involvement)과 돌봄(nurturance)은 자녀의 사회적 유능함과, 내적 통제 소재 그리고 공감 능력과 정적으로 연관되며(Lamb, 1987; Radin & Russell, 1983), 어린 시절 아버지와 심리적으로 가깝게 지각했던 성인들의 웰빙이 높았다(Amato, 1994). 특히, Fluori 와 Buchanan(2003)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개입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개입(father involvement)이 자녀들의 삶 만족감에 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능함보다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들의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간의 일관적인 모자 관계의 모습과 변화하는 부녀 관계 및 모녀 관계의 모습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Russel 과 Saebel 의 리뷰 논문(1997)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는 4 가지의 별개의(distinct) 관계이다. 따라서, 각 관계에 따른 자녀 행복에 미치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달랐으며, 이에 대한 것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 있는 발견은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부모와 자녀간에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생 가족의 아들의 경우만 제외하면,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관점과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감정 예측 오류(affective forecasting error)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감정 예측 오류란 사람들이 미래 감정의 유인가(valence), 경험하게 될 특정 정서, 정서의 강도(intensity), 그리고 정서의 지속성(duration) 등에 대해서 부정확한 예측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Wilson & Gilbert, 2003). 예를 들어, 사람들은 미래에 직장을 잃거나 애인과 헤어지거나 혹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팀이 선거나 경기에서 패했을 때,

중요한 인터뷰에서 실패하였을 때, 혹은 반대로 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때, 느끼게 될 정서를 실제보다 더 강하고 더 길게 지속될 것이라고 부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Gilbert & Wilson, 2000; Kahneman & Snell, 1992; Loewenstein et al., 2003; Mellers & McGraw, 2001; Wilson & Gilbert, 2003). 대부분의 연구들은 본인의 감정을 예측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 예측할 때도 오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부모들은 본인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자녀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행복 예측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지각과 정서에 대한 연구 및 부모와 자녀관계와 자녀의 행복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각과 지각자인 당사자의 정서를 확인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지각자인 자녀가 대상인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그것이 자녀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진행된 본 연구는 사회 지각 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지각자의 행복과 특히, 자녀의 행복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 간에 발생하는 사회 지각의 효과를 확인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 지각과 지각자의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한 것이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상사와 부하,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연인 및 부부 관계 등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취하는 태도 및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실용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 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에 대한 인식이 정 반대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성 고정관념에 따라 아버지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공하는 것 즉, 유능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어머니는 가정적이고 너그럽고, 온화한 즉, 따뜻한 어머니가 되는 것이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아버지는 자녀에게 따뜻한 아버지로 지각되는 것이,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유능한 어머니로 지각되는 것이 자녀가 실제 행복해 지는데 더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취하는 태도와 행동을 다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여러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더 다양하고 많은 피험자를 상대로 행복에 대한 사회 지각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더 다양한 연령층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학생 가족의 경우 피험자 수가 53 가족으로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모자 관계, 그리고 모녀 관계에 따른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가족과 중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2 개의 연구를 통해 자녀가 부모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지각하는 것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에 대한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 행복에 대한 부모의 따뜻함과 유능함 차원의 효과는 관련 연구의 범위를 넓히는 학문적인

의의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취하는 태도와 행동 등에도 많은 시사점을 갖게 해 주는 주제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지각자의 행복에 대한 사회 지각의 효과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인하는 후속 연구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Aaker, J., Vohs, K. D., & Mogilner, C. (2010). Nonprofits Are Seen as Warm and For-Profits as Competent: Firm Stereotypes Matte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224-237.
- Amato, P. R. (1994). Father-child relations, mother-child relations, and offspr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031-1042.
- Aunola, K., Stattin, H., & Nurmi, J. E. (2000).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strategies. *Journal of adolescence*, 23(2), 205-222.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An essay on psychology and religion*. Chicago: Rand McNally.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p2), 1.

- Baumrind, Diana.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1967).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esser, A., & Priel, B. (2003). A multisource approach to self-critical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 515–555.
- Block, J., & Haan, N. (1971). *Lives through time*. Lawrence Erlbaum.
- Cabrera, N., Tamis-LeMonda, C.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 E. (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1), 127–136.
- Castelli, L., Carraro, L., Ghitti, C., & Pastore, M.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bility on electoral outco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5), 1152–1155.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7). The BIAS map: behaviors from intergroup affect and stere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4), 631.
- Cuddy, A. J., Fiske, S. T., & Glick, P. (2008). Warmth and competence as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The stereotype content model and the BIAS map.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61-149.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
- Deci, E. L., & Ryan, R. M. (1991, August).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p. 237-288).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 81-84.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agly, A. H., & Karau, S. J. (2002). Role congruity theory of prejudice toward female leaders. *Psychological review*, 109(3), 573.
- Field, T., Lang, C., Yando, R., & Bendell, D. (1995). Adolescents' intimacy with parents and friends. *Adolescence* 30: 133–140.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878.
- Fiske, S. T., Cuddy, A. J., & Glick, P. (2007).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cogni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2), 77–83.
- Flouri, E., & Buchanan, A. (2003). The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Mother Involvement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3(3), 399–406.
- Freedman, M. B., Leary, T. F., Ossorio, A. G., & Coffrey, H. S.

- (1951). The interpersonal dimen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20*, 143–161.
- Gonzalez, A., Holbein, M., & Quilter, S. (2002). High school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parenting styl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7*, 450–471.
- Hemingway, G. H. (1988). *Papa: A Personal Memoir*. Paragon House.
- Herman-Stahl, M., & Petersen, A. C. (1996). The protective role of coping and social resources for depressive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6), 733–753.
- Judd, C. M., James-Hawkins, L., Yzerbyt, V., & Kashima, Y. (2005). Fundamental dimensions of social judgment: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judgments of competence and warm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99.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5702), 1776–1780.

Karavasilis, L., Doyle, A., & Markiewicz, D. (2003).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attachment to mother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53–164.

Komarovsky, M. (2004). *Dilemmas of masculinity: A study of college youth* (Vol. 7). Rowman Altamira.

Lamb, M. E. (1987). Introduction: The emergent American father.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Lasko, D. S., Field, T. M., Gonzalez, K. P., Harding, J., Yando, R., &

- Bendell, D. (1996). Adolescent depressed mood and parental unhappiness. *Adolescence* 31: 49-57.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1-101.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 Myers, D. G.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Who is happy--and why*. W. Morrow.
- Montemayor, R. (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ontemayor, R., & Hanson, E. A. (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3–30.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Muxan, M. J.,
& Wilson, M. (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Radin, N., & Russell, G. (1983). Increased father participation and
child development outcomes. *Fatherhood and family policy*,
191–218.

Reis, S., & Grenyer, B. F. S. (2002). Pathways to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5, 445–459.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1968).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283.

Ryan, R. M., & Deci, E. L. (2000).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Shulman, S., Elicker, J., & Sroufe, L. A. (1994). Stages of friendship growth in preadolescence as related to attachment histor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3), 341–361.

Steinberg, L. D. (1987). The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51–460.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Symonds, P. W.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821-829.*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5-412.*

Wilson, T. D., & Gilbert, D. T. (2003). Affective forecasting.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5, 345-411.*

Wojciszke, B., Bazinska, R., & Jaworski, M. (1998). On the dominance of moral categories in impression 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2), 1251-1263.*

Wojciszke, B. (1994). Multiple meanings of behavior: Construing

actions in terms of competence or mor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222.

Wojciszke, B. (2005). Morality and competence in person-and self-percep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6(1), 155-188.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1] 아버지의 따뜻함, 유능함 측정 문항(자녀 설문지)

다음은 아버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떠올려 보고 아버지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따뜻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따뜻하다

2.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너그럽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너그럽다

3.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상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상냥하다

4.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친절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친절하다

5.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가정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가정적이
않다						다

6.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유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유능하다

7.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경쟁심이			보통			경쟁심이
강하지 않			이다			강하다
다						

8.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똑똑하지			보통			똑똑하다
않다			이다			

9.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능력 있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능력 있다

10. 귀하의 아버지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성공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성공적이
않다						다

[부록2] 어머니의 따뜻함, 유능함 측정 문항(자녀 설문지)

다음은 어머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머니를 떠올려 보고 어머니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따뜻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따뜻하다

2.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너그럽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너그럽다

3.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상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상냥하다

4.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친절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친절하다

5.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가정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가정적이
않다						다

6.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유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유능하다

7.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경쟁심이			보통			경쟁심이
강하지 않			이다			강하다
다						

8.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매우
똑똑하지			보통			똑똑하다
않다			이다			

9.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능력 있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능력 있다

10. 귀하의 어머니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성공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성공적이
않다						다

[부록3] 부모의 따뜻함, 유능함 측정 문항(부모 설문지)

다음은 귀하 본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인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보통		매우
따뜻하지		이다		따뜻하다
않다				

2. 귀하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보통		매우
너그럽지		이다		너그럽다
않다				

3. 귀하는 얼마나 상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상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상냥하다

4. 귀하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친절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친절하다

5. 귀하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가정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가정적이
않다						다

6. 귀하는 얼마나 유능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유능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유능하다	

7. 귀하는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경쟁심이			보통		매우	
강하지 않			이다		경쟁심이	
다					강하다	

8. 귀하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똑똑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똑똑하다	

9. 귀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능력 있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능력 있다

10. 귀하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1-----2-----3-----4-----5-----6-----7

전혀						
성공적이			보통			매우
지			이다			성공적이
않다						다

[부록 4] 자녀 행복 측정 문항(자녀 설문지)

아래의 문장과 질문을 읽고, 자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매우 _____ 라고 생각한다.

1-----2-----3-----4-----5-----6-----7

행복한

보통

행복한

사람이

이다

사람이다

아니다

2.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_____.

1-----2-----3-----4-----5-----6-----7

덜

보통

더

행복하다

이다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삶을 즐깁니다. 당신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1-----2-----3-----4-----5-----6-----7

전혀		보통		정말
그렇지 않		이다		그렇다
다				

4.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불행**합니다. 비록 우울하지는 않지만 항상 자신들이 바라는 만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성격이 그렇습니까?

1-----2-----3-----4-----5-----6-----7

전혀		보통		정말
그렇지 않		이다		그렇다
다				

[부록 5] 자녀 행복 측정 문항(부모 설문지)

다음은 가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가족들을 떠올려 보고 가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1-----2-----3-----4-----5-----6-----7

전혀						
행복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행복하다

2. 귀하의 딸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1-----2-----3-----4-----5-----6-----7

전혀						
행복하지			보통			매우
않다			이다			행복하다

Abstract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parents' warmth and competence on the children's happiness

Xyle Ku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eople are primarily perceived along two fundamental dimensions: warmth and competenc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investigated how perceptions of people's warmth and competence affect perceivers' affective reactions to targets. Howeve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warmth and competence and happiness are lacking. Furthermore, no previous study has examined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warmth and competence on the children's happiness. The present studies address this gap in the literature by investigating warmth and competence perceptions in families consisting of a father, mother, son and daughter. The familie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1 and the famil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Study 2.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possess inaccurate forecasts regarding which dimension contributes to the children's happiness. In Study 1, fathers forecasted that their competence would contribute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mothers indicated that their warmth would contribute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However, children were happier when they perceived more warmth in their fathers and more competence in their mothers. In Study 2, parents forecasted that their warmth would contribute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except in the father-son relationship and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ere were yet again differences between the dimension that the parents' predicted to be important to their children's happiness and the dimension that actually predicted the children's happi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warmth and competence are important to children's happiness and tha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parents' forecasts regarding the dimensions that make their children happy and the dimensions that actually predict children's happiness.

Keywords. parents, children, social perception, warmth, competence, happiness

Student number: 2013-22493